

# 리아호나



가족 역사: 하나님  
계획에서의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라, 22, 26쪽

청년 성인: 안식일을  
우선으로 하며, 42쪽

친구들이 영적으로 약해질 때  
굳건하게 견디기, 52쪽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마태복음 6:28-30



**메시지**

- 4** 제일회장단 메시지:  
간증과 개종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 7** 방문 교육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 죄가 없음

**특집 기사**

- 14** 침례, 개종의 관문  
제이 데븐 코니쉬 장로  
침수로써의 침례는 지속적인 개종을 향한 성약의 길에 들어서는 첫 관문입니다.
- 18** 새로운 성전을 통해 찾아온 세 번의 기회  
돈 엘 설  
성전 일반 공개에서 영감받은 과테말라 가족들은 승영을 향한 여정에 오른다.
- 22** 가족 역사가 우리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바꾸는가  
에이미 해리스  
가족 역사를 탐구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원대하다는 것과, 그분이 우리를 개인적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는다.
- 26** 성전과 기술이 있는 “내 날들”  
닐 엘 앤더슨 장로  
이 시대에 우리가 지상에 온 특별한 목적 중 하나는 구원의 사업을 도와야 하는 우리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입니다.

**34** 우리의 여정이 끝나기까지  
리차드 엠 롬니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자녀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며 생애를 보낸 사람들의 모범에서 훌륭하게 견디는 것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습니다.

**교회 본부 기사**

- 8** 2014년 10월 연차 대회 노트
- 10** 우리의 믿음:  
축복사의 축복: 우리 삶의 영감 어린 길잡이
- 12** 우리 가정, 우리 가족:  
성전 성약에 감사하며  
캐리 플로렌스
- 38** 후기 성도의 소리
- 80** 다시 만날 때까지:  
참된 사랑  
조셉 비 워스린 장로

표지  
앞쪽 사진: 매튜 라이어  
안쪽 사진: 윌리 황

청년 성인

46



- 42** 안식일이 주는 축복  
에멀린 알 월슨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노력하는  
청년 성인들이 경험한 기적들
- 46** 청년 성인 소개:  
프랑스령 폴리네시아의 튼튼한 노와  
강한 간증  
민디 앙 리아비트

청소년

- 48** 날마다 하나님께 의지하십시오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날마다 우리가  
구하는 대로 돕고자 애쓰십니다.
- 52** 좋은 친구에게서 힘을 얻으십시오  
조지 에프 제볼로즈 장르  
어떤 친구와 사귀느냐는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치므로 현명하게 친구를  
선택해야 합니다.
- 54** 착한 친구들이 실족할 때  
친구들이 행동 표준을 낮추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 57** 우리들 공간
- 58** 전세의 삶에 관해 우리는  
무엇을 아는가  
노먼 더블유 가드너  
전세에서 우리가 구주를 따르기로  
했다는 지식이 있으면 필멸의 삶 동안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된다.
- 60** 질의응답  
최근에 친한 친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슬픔을 어떻게 견뎌야  
할까요?
- 62** 소피아가 그림습니다  
페르난도 페랄타  
누나와 내가 끔찍한 사고를 당했을 때  
우리 가족은 성전 성약에 의지하여  
평화를 찾았다.

어린이



70

- 65** 특별한 증인  
위틀 할머니의 편지
- 66**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게리 이 스티븐슨 감독  
지금은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며,  
우리의 이웃도 그렇게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때입니다.
- 68** 우리들 이야기
- 69** 빛나는 아이디어
- 70** 기도할 시간은 언제나 있어요  
바바라 호프  
편은 학교에 가기가 두려웠지만,  
마침내 어머니가 간단한 해결책을  
알려 주셨습니다.
- 72** 새로운 친구를 도와주며  
퀸리 더블유  
성신의 도움으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보이는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 73** 음악:  
예수님 요단강에  
진 피 롤러
- 74** 경전 속으로:  
예수님의 침례  
에린 샌더슨 및 진 빙엄
- 76** 어린 친구들을 위하여:  
줄리아나가 말씀을 해요  
제인 맥브라이드 초우트

이번 호에 숨겨진  
리아호나를 찾아보세요.  
단서: 자기 배낭을  
잊지 마세요.

52



2015년 2월호, 52권, 제2호

리아호나 12562 320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한국어판 잡지

제일회장단: 토마스 에스 몬슨, 헨리 비 아이머링, 디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심이사도 정원화: 보이드 케이 패커, 엘 톰 페리, 러셀 엠 넬슨, 델린 에이치 옥스, 엠 라셀 벨라드, 리차드 지 스코트, 로버트 디 헤일즈, 제프리 알 홀런드,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쿠엔틴 엘 쿡,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닐 앨 맨더슨

편집인: 크레이그 에이 카든

고문: 머빈 비 아놀드, 크리스토퍼 골든, 래리 알 로렌스, 제임스 비 마르티노, 조셉 더블유 시타디

관리 책임자: 데이비드 티 워너

운영 책임자: 빈센트 에이 본

교회 잡지 책임자: 앨런 알 로이보그

비즈니스 관리자: 가트 캐넌

관리 편집인: 알 발 존슨

관리 부편집인: 라이언 카

부출판인: 리사 캐틀리나 로페즈

기사 작성 및 편집 팀: 브리트니 비에티, 데이비드 덕슨, 데이비드 에이 에드워즈, 매튜 디 플리튼, 로리 풀러, 게렛 에이치 가프, 라린 포터 건트, 인디 앤 레닛, 마이클 알 모리스, 셸리 존슨 오터키코, 조슈아 제이 퍼키, 쟈 핀보로우, 리차드 엠 롬니, 폴 벤덴버그, 마리아 윌슨

관리 미술 책임자: 제이 스킷 크누센

미술 책임자: 태드 알 피터슨

디자인: 저넷 앤드루, 페이 피 앤드러스, 시 킴볼 보트, 토마스 차일드, 네이트 지네스, 콜린 윙클러, 에릭 피 존슨, 수잔 로프그렌, 스콧 엠 위이, 마크 더블유 로빈슨, 브래드 테어, 케이 니콜 워크호스트

지적 재산 코디네이터: 클레드 네베거 오온

제작 부장: 제인 앤 피터스

제작 팀: 케빈 시 뱅크스, 콘니 바스프 브릿지, 줄리 버넷, 브라이언 더블유 지기, 드니스 카비, 지니 제이 낄슨, 게이일 테이트 러퍼티

사건 인쇄: 제프 앨 마틴

인쇄 책임자: 크레이그 케이 세지윅

배부 책임자: 스티븐 알 크리스티안슨

미국과 캐나다 이외 지역에서는 store.lds.org에 접속하거나 해당 지역 교회 배부 센터나 워드, 지부 지도자에게 리아호나 신청 및 구독료를 문의하십시오.

등록: 제587호, 제52권, 제2호

등록: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2015년 2월 1일(월간지)

발행인: 정동환

편집 및 번역 책임자: 백길환

발행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서울특별시 중로구 청운동 7번지

인쇄인: 주식회사 보진재 김정선

리아호나 신청 및 문의

홈페이지: www.iahona.or.kr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이메일: koreadc@hanmail.net으로 신청서를 전송합니다.)

(“교회 잡지 구독 신청서(Excel)”는 www.lds.or.kr “물품신청” 교회 잡지 구독”에서 다운로드합니다.)

전화: 리아호나 담당자에게 연락해 주십시오.(전화 080-232-1441)

구독료

1년 구독료는 7,000원, 권당 가격은 700원입니다.(해외 구독은 개별 문의 바랍니다.)

아래 계좌로 입금해 주십시오.

예금주: (재)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신한은행 100-001-389810, 우체국 010041-01-000240

원고와 문의 사항은 liahona.lds.org에 온라인으로, 또는

liahona@dchurch.org에 이메일로 보내시거나 다음 주소로 우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Liahona, Rm. 2420, 50 E. North Temple St., Salt Lake City, UT 84150-0024, USA

리아호나(“나침반” 혹은 “지시기”를 뜻하는 물문경 용어)는 한국어 외에 다른 언어로 출판됨. 그리스어, 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라트비아어, 러시아어, 루마니아어, 리투아니아어, 마다가스카르어, 마셜어, 몽골어, 베트남어, 불가리아어, 비슬라마어, 사모아어, 세부어, 스웨덴어, 스페인어, 스와힐리어, 슬로베니아어, 아르메니아어, 아이슬란드어, 알바니아어, 에스토니아어, 영어, 우르두어, 우크라이나어, 이탈리아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간체자) 중국어, 체코어, 캄보디아어, 크로아티아어, 키리바시어, 타갈로그어, 타이어, 타히티어, 통가어, 포르투갈어, 폴란드어, 프랑스어, 피지어, 핀란드어, 헝가리어 (발행 횟수는 언어에 따라 다름.)

© 2015 Intellectual Reserve, Inc. 판권 소유. Printed in Korea.

리아호나에 실린 기사 및 시각 자료는 교회와 가정에서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임시로 복사할 수 있습니다. 시각 자료는 복사 제한 문구가 있는 경우 복사를 금합니다. 관권에 관한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50 E. North Temple St., Salt Lake City, UT 84150, USA; 이메일: cor-intellectualproperty@dchurch.org.

For Readers i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February 2015 Vol. 39 No. 2. LIAHONA (USPS 311-480) English (ISSN 1080-955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 North Temple St., Salt Lake City, UT 84150 USA subscription price is \$10.00 per year; Canada, \$12.00 plus applicable taxes. Periodical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ix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old and new address must b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at address below. Subscription help line: 1-800-537-5971. Credit card orders (American Express, Discover, MasterCard, Visa) may be taken by phone or at store.lds.org. (Canada Post Information: Publication Agreement #40017431)

POSTMASTER: Send all UAA to CFS (see DMM 707.4.12.5) NONPOSTAL AND MILITARY FACILITIES: Send address changes to Distribution Services, Church Magazines, P.O. Box 26368, Salt Lake City, UT 84126-0368, USA.

# 가정의 밤 제언

이번 호에는 가정의 밤 시간에 활용할 만한 기사와 활동들이 실려 있다. 두 가지 아이디어를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예수님의 침례”, 74쪽: “예수님 요단강에”(73쪽 참조)를 부르며 가정의 밤을 시작할 수 있다. 가족이 함께 예수님의 침례에 대한 경전 구절을 읽고, 이미 침례를 받은 가족에게 침례 및 확인을 받았을 때 무엇을 느끼고 알게 되었는지 발표해 보게 한다. 함께 경전을 읽고 간증을 나누면서 자녀들이 침례 관련 성약을 이해하도록 돕는다. 자녀에게 침례 성약에 대해 가르칠 때 이 기사에 실린 경전에서 답 찾기를 활용할 수 있다.

“참된 사랑”, 80쪽: 주 중에 가족 중 한 명에게 평소애 하는, 작지만 친절한 행동들을 찾아보라고 부탁한다. 가정의 밤에서 그 가족에게 주 중에 관찰한 바를 발표하도록 부탁한다. 워스린 장로는 이렇게 말씀했다. “사랑은 제자가 걷는 길의 시작이며, 과정이며, 끝입니다.” 자잘한 조각 여러 개를 이어서 간략하게 길 모양을 그린다. 크든 작든 친절한 행동을 할 때마다 조각을 하나씩 색칠할 수 있다고 가족들에게 설명한다. 여러분의 가족이 이웃에게 사랑을 보이려고 노력할 때, 여러분은 제자의 길을 따라 나아갈 수 있다.

## 여러분의 언어

리아호나와 그 밖의 교회 자료를 languages.lds.org에서 여러 언어로 볼 수 있다.

## 이번 호 주제

숫자는 각 기사의 첫 장을 나타냅니다.

- 가족 역사, 22, 26
- 가족, 12, 18, 22, 48
- 개종, 4, 14, 18
- 견담, 34
- 경전, 39
- 기도, 4, 12, 70
- 기술, 26
- 봉사, 34

- 사랑, 80,
- 사망, 60, 62,
- 선교 사업, 18, 38, 40, 64
- 성약, 14, 18, 62
- 성전, 18, 26, 41, 55
- 속죄, 7
- 신앙, 26, 34, 41, 48
- 안식일, 42

- 연차 대회, 8
- 예수 그리스도, 7, 73, 74
- 천세, 58
- 축복사의 축복, 10
- 친구, 52, 54, 72
- 침례, 14, 18, 40, 73, 74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제일회장단 제1보좌

# 간증과 개종

**진**리에 관한 간증을 얻는 것과 진정한 개종에 이르는 것은 다릅니다. 그 예로, 위대한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구주께 간증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마태복음 16:15~17).

그러나 나중에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경고하시며, 진정으로 개종하고 그 개종한 상태를 평생토록 유지하기 위한 지침을 주셨습니다. 이 지침은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누가복음 22:32).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 간증을 얻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개종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생각하고 느끼며 행할 만큼 큰 변화를 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두 추구하는 장대한 변화입니다. 한 번 변화한 뒤에는 그 변화가 필멸의 시험 기간이 끝날 때까지 계속되게 해야 합니다.(앨마서 5:13~14 참조)

우리는 영적인 권능을 몇 차례 강하게 경험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나 다른 사람들을 지켜보면서 배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영의 증거를 받고도 자신이 구주를 알지 못한다며 부인했습니다. 물몬경의 세 증인은 물몬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를 직접 얻고도 나중에 조셉 스미스를 주님

교회의 선지자로 지지하지 못하고 흔들렸습니다.

앨마서에 표현된 것처럼, 우리는 마음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들이 모두 백성들에게 동일한 것을 선포하였나니-곧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었으며, 악을 행하고자 하는 욕망을 더 이상 갖고 있지 않다 함이라.”(앨마서 19:33; 또한 모사이아서 5:2 참조)

주님께서는 그분의 복음으로 진정으로 개종하면 우리 마음이 이기적인 관심사에서 벗어나서, 영생으로 나아가게 하는 이웃을 들어 올리는 봉사로 돌아선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렇게 개종하기 위해 우리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서

## 이 말씀으로 가르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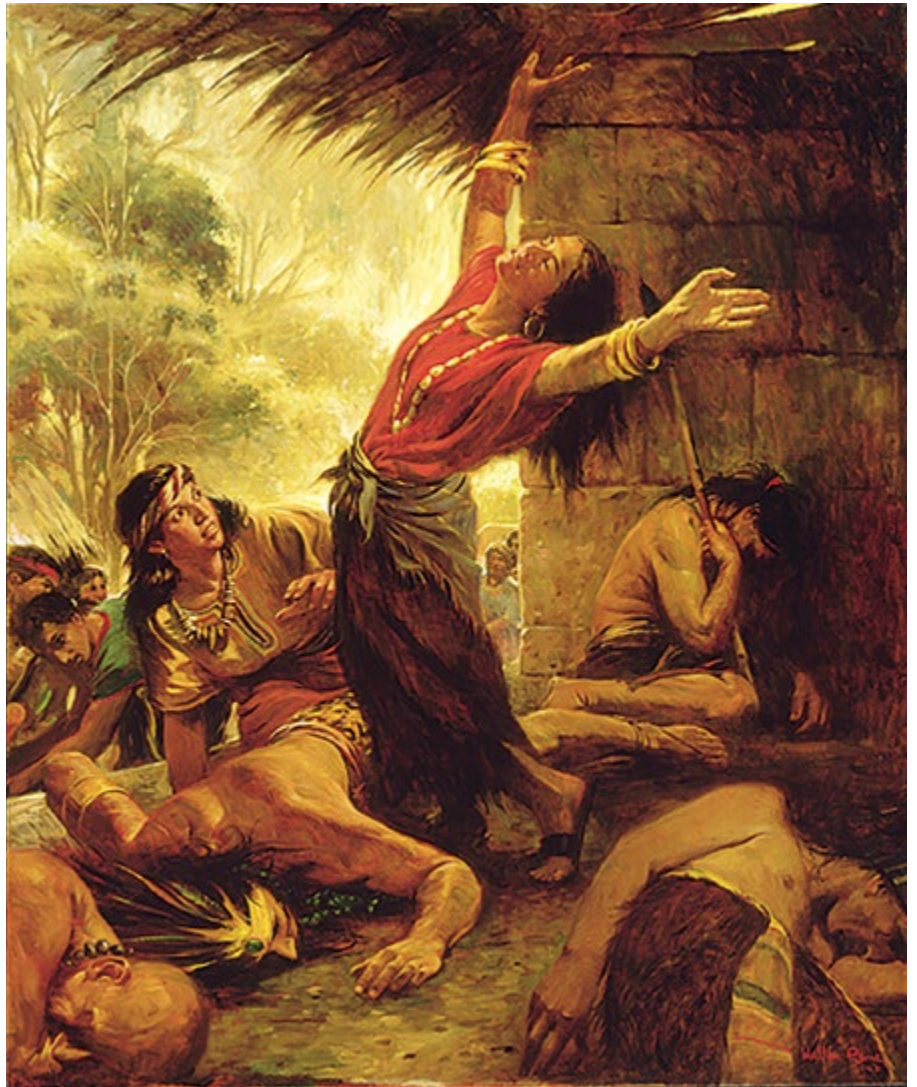
**십**이사도 정원회의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는 “피클의 비유”를 들어 개종은 단발성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인 과정임을 가르쳤다. “말씀에 말씀을, 교훈에 교훈을 더하여 점진적으로, 그리고 거의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동기, 생각,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기 시작합니다.”(“너희는 거듭나야 하리라”, *리아호나*, 2007년 5월호, 21쪽) 여러분이 가르치는 사람들과 함께 피클의 비유를 살펴본다. 아이어링 회장과 베드나 장로가 설명한 점진적 개종 과정에서, 꾸준히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 각자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자 기도하고 봉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기심에 대해 회개하는 신앙을, 또한 자신보다 타인을 보살피는 은사를 얻기 위해 기도함으로써 개종을 향한 여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만과 시기를 내려놓을 힘을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귀하게 여기는 은사를 받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모로나이서 7:47~48 참조) 그 두 가지는 함께 일어납니다. 우리는 읽고 상고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 마음에 그 말씀을 심어 주실 것입니다. 그 사랑을 느낄 때,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에 두신 사람들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날 것입니다.

가령, 우리는 주님께서 그분의 선교사를 통해 가르치고자 하시는 사람들을 알아볼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전임 선교사들은 어떤



앨마서 19장에 나오는 라모나이 왕의 백성이 겪은 것처럼 우리에게서는 마음의 변화가 필요하다.

것을 가르치고 간증해야 하는지 영으로 알기 위해 신앙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나는 사람들 모두가 자신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기를 기도로 간구할 수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만나는 사람 모두를 침례의 물가로 인도하고 성신의 은사를 받게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선교사들은 성신과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봉사하고 성신의 도움을 받으면서, 선교사들은 결국 마음의 변화를 겪을 것입니다.

그들과 우리가 이타적인 마음으로 평생 신앙을 행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웃을 강화해 나갈 때, 그

변화는 거듭해서 새로워질 것입니다. 개종은 인생의 한 철만 경험하고 마는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지속적인 과정이 될 것입니다. 삶은 끊임없이 밝아져 대낮이 될 것이며, 그때 우리는 구주와 마주하여 우리가 그분처럼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서는 그 여정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온 것은 빛이니, 빛을 받아들이고 계속하여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빛을 더욱 받아들이나니, 그 빛은 점점 더 밝아져 마침내는 대낮이 되리라.”(교리와 성약 50:24)

저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약속합니다. ■

## 마음의 변화

단테 바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을 처음 접했을 때, 나는 영의 느낌을 통해 복음이 참되다는 확신이 들었다. 기도를 하며 간증이 더욱 명확해졌고, 그래서 침례를 받기로 결심했다.

그런데 침례를 받고 얼마 되지 않아서 워드 회원들은 선교 사업을 나갈 생각이 있느냐며 나에게 묻기 시작했다. 솔직히,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가족과 학교를 떠나 선교 사업을 한다니, 그건 너무나 터무니없는 이야기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내가 개종한 일을 생각해 보기 시작했다.

참을성 있게 내 질문에 답해 주고 내가 복음을 이해하도록 도와준, 나를 가르쳤던 선교사들을 떠올렸다. 선교사들이 돕지 않았다면 나는 영영 참된 교회를 찾지 못했을 것이다. 그 점을 깨닫자 가슴속에 봉사하고 싶다는 소망이 싹텄다. 전임 선교사로 봉사해야 한다는 영의 속삭임이 느껴졌다.

선교 사업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업이며, 우리는 선교 사업을 발판 삼아 많은 영혼이 회복된 복음의 훌륭한 지식을 얻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글쓴이는 브라질 포르탈레자에 산다.

## 어린이

### 여러분의 간증이 밝게 타오르게 하세요

**간**증을 얻는 것은 불을 피우는 것과 같습니다. 불이 계속 타오르려면 나무를 넣어야 하는 것처럼, 간증을 키우려면 기도하고, 회개하고, 이웃에 봉사하고, 경전을 공부하며,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아래 경전 구절을 읽고 간증을 얻는 법에 대해 더 알아보십시오. 경전 구절을 하나씩 읽고 불꽃 부분에 색칠하세요. 경전을 더 많이 읽을수록 불꽃과 여러분의 간증도 더 밝게 타오르겠죠!

- ㄱ. 모사이야서 2:17
- ㄴ. 열마서 5:46
- ㄷ. 열마서 32:27
- ㄹ. 제3니파이 15:10
- ㅁ. 요한복음 5:39





이 자료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공부하고 누구와 나누기 위해 간구한다. 구주의 생애와 사명을 이해함으로써, 어떻게 여러분은 그분을 믿는 신앙을 키우고, 방문 교육을 통해 여러분이 돌보는 자매들을 축복할 수 있는가? 더 자세한 내용은 [reliefsociety.lds.org](http://reliefsociety.lds.org)에서 알아본다.

##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 죄가 없음

다음은 구주의 속성을 다루는 방문 교육 메시지 연재 기사이다.

**우** 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를 위해 속죄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셨다. 제일회장단 제2보좌인 디이터 에프 우프트도르프 회장은 이렇게 말씀했다. “흠 없는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진해서 희생 제단에 누워 우리의 죄값을 …… 치르셨습니다.”<sup>1</sup>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으셨다는 사실을 이해하면, 그분을 믿는 신앙을 키우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며 회개하고 깨끗해지려 노력하는 데 도움이 된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는 이렇게 말씀했다. “예수님[은] …… 육과 영으로 된 존재이지만, 유혹에 굴하지 않으셨습니다.(모사이야서 15:5 참조) …… 우리는 그분에게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과 육의 갈등을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그 갈등을 이겨 낼 수 있는 방법도



알고 계십니다. …… 예수님의 구속의 권세는 죄의 영향을 없앨 수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그분의 속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로움을 인정받고 죄 없다 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제3니파이 27:16~20 참조) 그것은 마치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유혹에 굴하지 않았던 것과 같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리고 매주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려 노력할 때, 우리의 영은 육으로 난 인간의 약점을 통제할 수 있는 권능과 능력을 발휘하게 되며, 내면의 싸움은 진정되고, 유혹은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않게 됩니다.”<sup>2</sup>

### 보충 성구

마태복음 5:48; 요한복음 8:7; 히브리서 4:15; 니파이후서 2:56

주

1. 디이터 에프 우프트도르프, “이제는 할 수 있어요!” 리야호나, 2013년 11월호, 56쪽.
2.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리야호나, 2002년 11월호, 71쪽.

### 생각해 볼 점

깨끗하다는 것은 완전하다는 것과 어떻게 다른가?



## 신앙, 가족, 구제

### 경전에서

구주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아들이시며, 죄 없는 삶과 갓세마네 동산에서의 고통과 피 흘리심을 통하여,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우리는 다시 깨끗해질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관해 가르친 베냐민 왕은 백성들이 자신이 한 말을 믿는지를 물었다. “그들이 모두 한 목소리로 소리쳐 이르되, …… 주의 영이 우리 안에, 곧 우리 마음 가운데 큰 변화를 이루셨으므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악을 행하고자 하는 의향이 없으며, 끊임없이 선을 행하고자 하나이다. ……

이에 우리[도] 기꺼이 우리 하나님과 성약을 맺어 …… 그의 뜻을 행하며, …… 모든 일에 있어 그의 계명에 순종하여”(모사이야서 5:1~2, 5) 베냐민 왕의 백성처럼 “큰 변화”를 이룰 수 있다. 그들은 “더 이상 악을 행하고자 하는 의향이 없으며, 끊임없이 선을 행하고자”(모사이야서 5:2) 했다.

# 2014년 10월 연차 대회 노트

“나 주가 말한 것은 내가 말한 것이요, …… 내 자신의 음성으로 한 것이나 나의 종들의 음성으로 한 것이나 같으니라.”(교리와 성약 1:38)

2014년 10월 연차 대회 말씀을 다시 살펴보면, 다음 내용(그리고 향후 리아호나에 실릴 연차 대회 노트)을 활용하여 살아 있는 선지자와 사도, 교회 여러 지도자들이 전한 최근 가르침을 공부하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교리 살펴보기



## 황금률을 실천하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공손함의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좋은 경청자가 되며, 타인의 신실한 믿음에 관심을 보여야 합니다. 동의하지 않더라도 불쾌해해서는 안 됩니다. 논쟁의 소지가 있는 주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과 발언이 다툼을 일으켜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입장을 설명하고 관찰하며 영향력을 행사하려 할 때에는 현명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지닌 종교적인 믿음이나 자유로운 종교적 표현에 언짢아 하지 말라고 부탁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구주의 황금률을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마태복음 7:12)’.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타인을 사랑하고, 차이를 존중하며 살아갑시다”, 리아호나, 2014년 11월호, 27쪽.

## 선지자의 약속



## 계시

“이 교회는 끊임없이 계시를 받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교회 전체를 위한 계시를 받으며 스테이크 회장은 스테이크에 대한 계시, 선교부 회장은 선교부에 대한 계시, 정원회 회장은 정원회에 대한 계시, 감독은 와드에 대한 계시, 아버지는 가족에 대한 계시, 그리고 각 개인은 자기 자신에 대한 계시를 받습니다.’<sup>1</sup>

그 말씀이 참되다는 제 간증을 전해 드립니다. ……

하나님은 성신을 통해 그분의 자녀들에게 계시를 쏟아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지상에 있는 그분의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며, 오늘날 그 선지자는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이십니다. 저는 그분이 지상의 모든 신권 열쇠를 쥐고 계시고, 또한 행사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제1보좌, “계속되는 계시”, 리아호나, 2014년 11월호, 73쪽.

주

1. 보이드 케이 페커,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모든 것을 믿는다”, 성도의 벗, 1974년 12월호, 36쪽.



### 가서 행하라

십이사도 정원회의 날  
엘 앤더슨 장로는 “조셉  
스미스에 대한 자신만의  
간증을 지니는” 두 가지  
방안을 청소년들에게

제시했다.

“첫째, 절대적으로 옳다고 느끼는,  
또는 그렇다고 아는 성구를 물론경에서

찾으십시오. 그런 뒤 조셉 스미스가  
하나님의 손에 들린 도구였음을 인정하면서  
그것을 …… 가족과 친구들과 나누십시오.  
둘째, 값진 진주[에서] ……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간증을 읽으십시오. …… 조셉  
스미스의 간증을 여러분의 목소리로  
녹음해서, 정기적으로 듣고 친구와 나누는  
것도 생각해 보십시오.”

“조셉 스미스”, *리아호나*, 2014년 11월호, 30쪽에서  
발췌함.

## 여러분을 위한 해답

연차 대회에서 선지자와 지도자들은 교회  
회원들이 갖고 있을 만한 질문에 영감  
어린 대답을 해 줍니다. 2014년 11월호나  
conference.lds.org에서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 우리는 어떻게 성찬의 의미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가? 쉐럴 에이  
에스플린, “성찬—영혼을 위한 재생”,  
12쪽 참조.
- 선택의지와 공의, 자비와 회개,  
그리고 구주의 속죄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영원히 자유롭게, 스스로 행하며”,  
16쪽 참조.
- 가정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는 이상적인 터전이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태드 알  
콜리스터, “자녀의 복음 교육에서  
주된 교사: 부모”, 32쪽 참조.
- 부모는 영원한 가족을 이루기 위해  
어떻게 함께 일할 수 있는가? 엘 톰  
페리, “지속적인 평안을 찾고 영원한  
가족을 이루십시오”, 43쪽 참조.

## 와서 보라



후기 성도는 왜 복음을 나누고자 하는가?

십이사도 정원회의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는 이렇게 말씀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적인 제자들은 언제나  
충실한 선교사였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선교사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분이 구속주이심을 증언하고 그분의  
복음이 참됨을 선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언제나 ……  
선교 사업을 하는 교회였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

자신에게 가장 의미 있는 것이나 도움이

됐던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이 같은 행동 양식은 영적으로 매우  
중요하고 영향력 있는 일에서 특히 잘  
드러납니다.”

사람들이 복음이나 교회에 대한 관심을  
표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베드나 장로는 우리가 구주의 모범을  
따라 이들에게 “와서 보라”(요한복음  
1:39)고 권유할 수 있다고 말씀했다.

“와서 보라”, *리아호나*, 2014년 11월호, 107,  
108쪽에서 발췌함.

conference.lds.org에서 연차  
대회 말씀을 읽거나 시청 또는  
청취할 수 있습니다.

# 축복사의 축복: 우리 삶의 영감 어린 길잡이

**교** 회에는 두 부류의 축복사가 있다.  
(1) 아버지들, 그리고

(2) 멜기세덱 신권으로 축복사 직분에 성임받은 이들이다. 멜기세덱 신권이 있는 아버지는 자신의 가족에게 축복을 줄 수 있는데, 가족들은 그와 같은 축복을 기록할 수 있지만, 교회는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지 않는다. 반면, 성임받은 축복사가 합당한 교회 회원에게 준 축복은 교회에서 기록을 하는데, 이와 같은 축복은 “축복사의 축복”으로 불린다.

축복사는 성신의 영감에 따라 축복을 준다. 축복사의 축복은 경고 또는 약속과 아울러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기대와 여러분의 잠재력을 알려 준다.

약속된 축복들은 여러분의 충실함에 따라 주님의 시간표대로 성취될 것이다. 반드시 축복문에 담긴 권고를 따를 때에만 약속된 축복들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일부 축복은 내세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다. 여러분이 받은 축복사의 축복은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낱알이 알려 주지는 않을 것이다. 가령, 전임 선교 사업이나 성전 결혼이 언급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런 기회가 오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축복사의 축복은 또한 이스라엘의 집에서 여러분이 어떤 혈통을 따르는지를 알려 준다. 여러분은 에브라임, 유다, 므낫세, 또는 그 외 다른 지파 중 한 지파로부터 왔을 것이다.<sup>1</sup>

이 혈통이 중요한 것은 그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음의 축복으로 복을 받을 것”(아브라함서 2:11)이라는, 아브라함에 대한 주님의 약속을 포함하는 아브라함의 성약 때문이다. 교회 회원 모두는 말 그대로 혈통 면에서, 아니면 영적 입양을 통해 이스라엘의 집에 속한다. 그리하여 우리는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서 맡아 수행해야 할 몫이 있는 것이다.

축복사의 축복을 받으려면, 추천서를 써 줄 수 있는 여러분의 감독 또는 지부 회장과 접견한다. 사전에 금식하며 기도한다면 축복을 받을 때 더 훌륭한 경험을 할 수 있다. 여러분이 축복사의 축복을 받는 자리에는 가까운 가족이 함께할 수 있다.

축복을 받은 후에는 축복 내용이 담긴 인쇄본이 여러분에게 송부될 것이다. 그것을 비밀스럽게 간직하도록 한다. 그 권고와 약속은 여러분 개인에게 주어지는 것으로, 특별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서는 안 된다. 축복문을 자주 상고하라.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길잡이가 되고, 위로와 보호를 제공할 것이다. ■

## 자신만의 값진 보물



“리하이에게 리아호나를 주셨던 바로 그 주님께서 오늘날 여러분과 저를 위해 우리들 생활에 방향을 제시하고, 우리의 안전을 위하여 위험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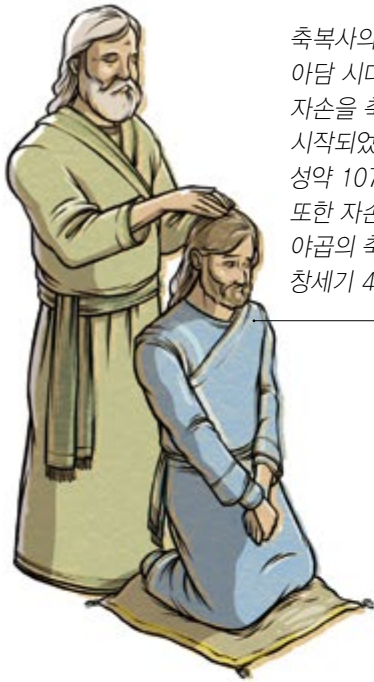
진귀하고 귀중한 선물을 마련하고 계십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선물은 축복사의 축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합당한 회원은 그와 같이 값지고 귀한 개인적인 보물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표시하고, 약속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길을 제시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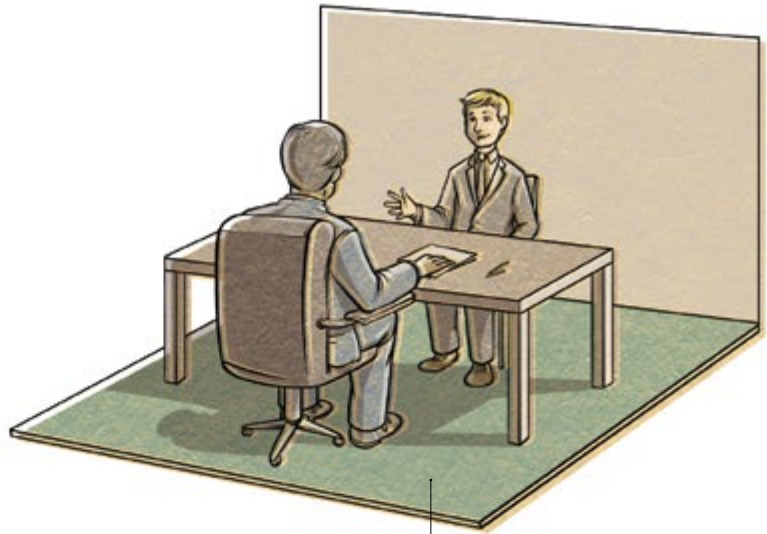
토마스 에스 몬슨, “축복사의 축복: 빛의 리아호나”, 성도의 빛, 1987년 1월호, 83쪽.

주

1. 경전 안내서, “이스라엘”, scriptures.lds.org를 참조하여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에 대해 알아본다.



축복사의 축복은 아담 시대에 그가 자손을 축복하면서 시작되었다.(교리와 성약 107:53 참조; 또한 자손에 대한 야곱의 축복을 설명한 창세기 49장 참조)



여러분의 감독이나 지부 회장과 접견을 하여 여러분이 축복사의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알아볼 수 있다.



축복사의 축복을 받은 후에는 그 내용을 자주 상고하여 거기에 나오는 권고를 따르도록 노력한다. 그것은 여러분에게 위안을 주고 여러분의 신앙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신약전서에서 “복음 전하는 자”로 불리던 축복사의 직분이 후기에 회복되었다. 조셉 스미스 일세가 교회의 첫 번째 축복사가 되었다.



모든 축복사의 축복은 교회 본부에 저장되어 있다. 축복문을 잃어버렸다면 LDS.org를 통해 사본을 요청할 수 있다.

# 성전 성약에 감사하며

캐리 플로렌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들이 죽어 가는데 어떻게 슬픔을 달래야 할까?

**세** 번째 아이를 임신한 지 겨우 14주 정도 되었을 때, 의사들은 아기의 폐에 문제가 있어서 유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 주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다. 가슴이 무너지고 두려운 생각에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가 잡히지 않았다. 그날 저녁 나는 남편과 무거운 마음으로 눈물을 글썽이며 성전에 갔다. 힘과 인도, 응답이 필요할 때였다. 우리는 성전이 주는 평온함을 느끼며 주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해의 왕국실에서 느낀 평화는 놀라웠다. 아기가 지상에 머물지 못할지라도 모든 것이 괜찮아지리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리고 나중에는 무릎을 꿇고 영혼을 다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며, 아들이 살지 못하리라는 것은 이해하지만, 그래도 가능하다면, 특별한 축복을 소망한다고 말씀드렸다. 아울러 내 소망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신앙을 잃지 않겠다고 약속드렸다. 나는 가족 모두가 품에 안아 볼 수 있을 만큼만이라도 아기가 버터 주기를 간구했다. 의사들은 아기가 만에 하나 산달을 채우더라도 자춧빛 피부로 태어날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 나는 아들들이 겁먹지 않고 동생을 안아 줄 수 있도록 아기가 분홍빛으로 태어나기를 기도했다. 그리고 '브라이슨'이라 부르기로 한 우리 아기가 떠나더라도 우리가 영원한 결합을 기억하기를 간구했다.

한 주가 지날 때마다 의사들은 우리 아기 브라이슨이 놀랍게 호전되고 있다면서도, 출생 뒤에는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아들을 잃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말할 수 없이 슬펐지만 그 와중에 아기가 여전히 자라고 있다는 사실이 그저 기뻐다. 살지 못할 아이를 뱃속에 품고 있기에 쉬운 일이 아니다. 사람들이 아이의 성별이나 분만 예정일을 물으면 괴롭지만 모든 것이 정상인 양 행동해야 했다. 우리는 날마다 아기의 심장 박동을 확인하려고 모니터 한 대를 샀다. 애타게 기다리던 귀한 소리였다. 슬픔이 깊어 갔다. 그리고 구주의 속죄가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다. 그런 일을 겪다 보니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해 고통당하셨을 뿐 아니라 모든 슬픔과 모든 고통까지 겪으셨다는 사실이 이해됐다. 그분이 내 구주로서 그 짐을

함께 지셨기에 나는 전혀 외롭지 않았다. 37주가 되어 입원을 하면서, 이제



## 부모를 위한 위로

“조셉 스미스는 일찍 죽은 유아는 부활 시에 어린아이로

나타난다는 교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를 잃은 어머니를 가리켜 ‘당신은 부활한 후에 그 영이 완전히 성장할 때까지 그의 아들을 키우는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을 얻을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죽음으로부터 부활한 후에는 회복과 성장과 발전이 있습니다. 저는 이 진리를 사랑합니다. 그것은 저의 영혼에 많은 행복과 기쁨과 감사함을 가져다줍니다.”

조셉 에프 스미스(1838~1918) 회장,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에프 스미스(1998), 132쪽.



브라이슨은 72분밖에 살지 못했다. 말 그대로 우리 모두가 안아 주고 사랑해 줄 만큼만 시간이 허락되었다. 우리가 지상에서 가족으로 함께한 그 유일한 시간은 모든 게 우리가 꿈꾸던 그대로였다.

본격적으로 브라이슨에게 남은 시간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생각이 들었다. 말할 수 없이 무섭고 아름다운 일이었다. 의사들은 아이가 짧게는 10분, 길게는 며칠도 살 수 있다고 했다. 두려웠지만, 주님이 나를 안심시키고 계시다는 느낌이 들었다. 브라이슨 케이드 플로렌스는 2012년 1월 27일에 태어났다. 그토록 완전하고 예쁘게 분홍빛으로 태어난 아기를 본 순간 나는 흐느껴 울었다.

아들들은 동생을 보고 안아 주려고 병실로 뛰어 들어왔다. 우리는 사진사 한 명을 데려와 그 장면을 찍게 했다. 브라이슨은 72분밖에 살지 못했다. 말 그대로 우리 모두가 안아 주고 사랑해 줄 만큼만 시간이 허락되었다. 우리가 지상에서 가족으로 함께한 그 유일한 시간은 모든 게 내가 꿈꾸던 그대로였다.

형들은 너도나도 동생에게 입을 맞추고 안아 주겠다고 애원하며 노래를 불러 주지 못해 안타달이었다. 게다가 남편이 소망하고 기도한 것처럼 아이는 아버지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오래 머물러 주었다.

우리 가족은 “하나님의 행복의 계획은 가족 관계를 무덤 너머까지 계속되게” 하며 성전 의식과 성약은 “가족을 영원히 하나로 결속시켜 준다.”(“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리아호나, 2010년 11월호, 129쪽)는 간증을 얻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영원한 가족이 되는 것이었다. 절대로 죽음은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으며 우리의 여정은 계속되리라는 것만큼 복음에서 아름다운 부분은 없다.

이 시련을 통해 나는 하나님이

매우 세심하심을 깨달았다. 그분은 우리를 개별적으로 보살피신다. 시련과 고난은 있지만, 그런 것들을 더 쉽게 극복하도록 도와주신다. 내가 성전에서 남편에게 인봉됐고 우리 자녀들이 성약 안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이 어느 때보다 감사하다. 구주의 무한하신 희생이 포함된, 우리 가족을 위해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아름다운 계획으로 우리는 다시 함께할 수 있다. 가끔 내가 이 영원한 진리를 알지 못했다면 그 어려운 시련을 어떻게 견뎌냈을까 생각해 본다. 나는 브라이슨의 짧은 생애에서 얻은 간증이 끝없이 감사하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축복을 알아보게 하시려고 내 눈과 마음을 더 크게 열어 주셨다. ■

글쓴이는 미국 애리조나에 산다.



제이 데븐 코니쉬 장로  
칠십인 정원회





# 침례, 개종의 관문

침례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일로서 평생에 걸친 개종의 길을 열어 주는 관문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 더 온전히 이해할 수 있기를, 그리고 자비로운 속죄를 치르신 구주의 사랑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글** 렌(가명)은 혼돈과 갈등이 가득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십 대에 폭력 조직과 범죄, 폭행에 연루되었습니다. 선교사들을 만난 글렌은 그들이 믿는 바가 너무도 훌륭해 보여서 오히려 믿을 수가 없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덧 그 믿음이 정말로 진실하며, 자신이 여태 알던 그 무엇보다 값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삶을 정리하고 복음대로 생활하며 진심으로 회개한 글렌은 침례의 물에 들어섰습니다. 그는 빛과 평화, 기쁨으로 가득한 새 인생을 찾았습니다. 글렌은 주님 앞에서 깨끗했습니다.

니파이는 말했습니다.

“그러즉 내가 본 바, 너희 주 곧 너희 구속주께서 행하시리라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행하라. 이는 이 이유로 그러한 것이 나에게 보여졌음이니, 너희로 하여금 너희가 들어가야 할 문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이는 너희가 들어가야 할 문이 회개와 물의 침례요, 그 후에 불과 성신에 의하여 너희의 죄 사함이 임함이라.

또 그때 너희는 영생으로 인도하는 이 험착하고 좁은 길에 있나니, 참으로 너희는 문으로 들어온 것이다.”(니파이후서 31:17~18)

이 구절은 구원을 얻으려면 하나님과 그분의 자녀 사이의 거룩한 성약의 상징인 침례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또한 마가복음 16:16; 사도행전 2:38; 니파이후서 9:23~24

참조) 명확히 가르칩니다. 실제로, 예수님도 “모든 의를 이루[시려]”(마태복음 3:15) 침례를 받으셨을 만큼 이 의식은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니파이는 이 점에 관해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또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이 그가 거룩하심에도, 모든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받으실 필요가 있을진대, 오 그러할진대, 거룩하지 못한 우리가 참으로 물로 침례를 받을 필요가 얼마나 더 있겠느냐!”(니파이후서 31:5)

우리가 침례 받을 때 기꺼이 성약을 맺고자 함을 아버지께 증거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무리 안으로 들어와, 그의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기 원하며 기꺼이 서로의 짐을 져 가볍게 하고자 하며,

참으로 또한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기꺼이 슬퍼하고, 또한 위로를 필요로 하는 자들을 위로하며, 참으로 죽을 때까지 어느 때에나 무슨 일이나, 너희가 있게 될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 너희가 하나님께 구속을 받고 첫째 부활에 속한 자들과 함께 헤아림을 받아 영생을 얻고자 한즉-”(모사이아서 18:8~9).

우리는 매주 일요일에 성찬을 들며 이 성약을 새롭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축복문에 언급된 성약의 말로 이렇게 증언합니다. “저희가 기꺼이 당신 아들의 이름을 받들며, 항상 그를 기억하고 그가 저희에게 주신 계명을 지키고자 함을 당신에게 증거하게 하시오며, 그리하여 저희가



항상 그의 영과 함께 하도록 하시옵소서.”(교리와 성약 20:77)

### 예비 의식

침례는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의지를 증거하는 일이며 우리는 침례를 통해 하나님의 왕국으로, 즉 지상에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경전 안내서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권세를 가진 사람에게 의하여 물에 잠기게 하는 침례는 복음의 예비의식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원이 되기 위해서 필요하다.”<sup>1</sup>

구주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침례의 목적을 명확히 설명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요한복음 3:5).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의 면전에 거하려면 합당한 권세로써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아울러 저는 침례에 또 다른 중요한 목적이 있다는 데에서 기쁨을 느낍니다. 침례는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거쳐 해의 왕국으로 가는 문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두 바라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모로나이서 10:32, 33) 되기 위해 거쳐야 할, 귀하고 필수적이며, 지속적인 과정이 시작되는 입구이기도 합니다. 신앙개조 제4조에 서술된 이 과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시작하여, 회개하고, “죄 사함을 위한 침수로써의 침례”를 받은 뒤 성신의 은사를 받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이렇게 지속하는 과정을 간단히 개종이라 부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처음 하신 말씀에서 이를 언급하셨습니다. 위대한 교사였던 예수님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묻는 니고데모의 질문에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요한복음 3:3).

십이사도 정원회의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님은 사람이 거듭나려면 침례 이상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셨습니다.

“[경전이] 설명하는 영적인 거듭남은 빠르게 혹은 갑자기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며 단발성 사건이 아닙니다. ……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행사하고, 죄를 회개하고, 신권의 권세를 지닌 사람에게 죄 사함을 위한 침수로써의 침례를 받음으로써 거듭남의 과정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거듭나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단계”에는 “구주의 복음에 완전히 잠겨 충만해지는 것”<sup>2</sup>이 포함됩니다.

“거듭남”은 개종의 다른 이름입니다. 거듭남이란 구주께서 받겠다고 하신 유일한 헌물인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을 지니는 것을 뜻합니다.(제3니파이 9:19~20 참조) “마음에 이 크나큰 변화를 경험”하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앨마서 5:14; 또한 모사이야서 5:2; 앨마서 5:26 참조)

죄 사함으로 이어지는 이 과정은 회개하고 침례 받는 데 충분한 만큼의 신앙에서 시작됩니다. 물론은 이 점을 설명하며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회개의 첫열매는 침례요, 침례는 신앙으로 말미암아 와서 계명을 이름에 이르며, 계명을 이름은 죄 사함을 가져오니라.”(모로나이서 8:25)

많은 교회 회원들처럼 저 또한 글렌 같은 분들이 겪은 극적인 개종을 경험한 적은 없습니다. 저는 “훌륭하신 부모에게서



태어나”(니파이전서 1:1; 또한 이노스서 1:1 참조) 여덟 살에 침례를 받았습니다. 저 같은 사람, 성인이 되어 교회 회원이 된 사람들처럼 그런 개종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원한 개종으로 향하는 관문**

이것은 우리 각자가 침례라는 관문에 대해 알게 되는 가장 아름다운 요소 중 하나입니다. 성신의 은사라는 필수 요소가 뒤따르다 하더라도, 침례는 도착점이 아닙니다. 침례는 꾸준하고 참된 개종이라는, 평생 이어지는 과정의 첫 관문입니다.

모든 새로운 회원이 경험하듯 이 과정은 침례를 받음으로써 신앙 가운데 아버지의 뜻을 행하겠다는 간절한 소망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과거에 저지른 모든 죄를 면밀히 돌아보고 죄를 멈추고 고백하고, 필요하다면 보상한 뒤에 다시는 그 죄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침례를 받은 다음에는 생각과 행동, 우리 자신을 통해 항상 구주를 기억하기만 한다면, 언제나 성신을 동반할 수 있는 권리를 얻습니다.

하지만 침례를 받고 나서 또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두 물거품이 되는 것일까요? 우리 아버지는 자비롭게도 인간의 연약함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과 희망을 품고 진지하게 회개하는 과정을 다시금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개 침례 의식이 다시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주님께서 성찬 의식을 마련하셨습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 매주 자신을 살피고(고린도전서 11:28 참조) 진지하게 회개하고 다시금 주님의 용서를 구하여 상징적으로 우리 죄를 주님의 제단에 올려놓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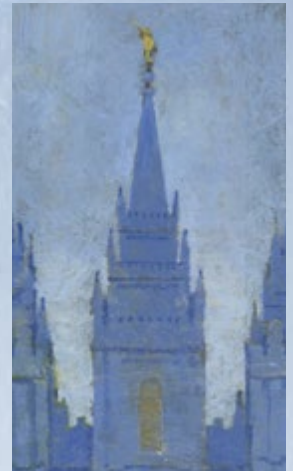
뒤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베냐민 왕은 이 과정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을 벗어 버리고 주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성도가 되며”(모사이아서 3:19) 이처럼 짐을 내려놓고 고결한 사람이 되는 과정을 바울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의 죽으심과 함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로마서 6:4, 6).

이는 끊임없이 쌓이고 쌓이는 과정으로,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해 그리스도의 자비와 공덕 안에서 천사들과 함께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앨마서 5:26 참조) 이 과정의 일부인 영적 성장은 우리가 신권 성임 및 성전에서 제공되는 의식을 받고 관련 성약을 지키는 가운데 일어납니다.

침례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일로서 평생에 걸친 개종의 길을 열어 주는 관문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 더 온전히 이해할 수 있기를, 그리고 속죄를 치르신 구주의 자비로운 사랑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구주께서는 “문 밖에”(요한계시록 3:20) 서서 우리를 부르시며 나아와 그분과 아버지와 영원토록 함께 거하자고 말씀하십니다. ■



**주**

1. 경전 안내서, “침례, 침례를 주다”, scriptures.lds.org.
2.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너희는 거듭나야 하리라”, 리야호나, 2007년 5월호; 강조체 추가.



# 새로운 성전을 통해

찾아온 세 번의 기회

과테말라 케트살테낭고 성전 일반 공개에 참석한  
세 가족의 삶에 일어난 변화

## 돈 엘 설

부부 선교사, 중앙 아메리카 지역, 2012~2014

### 새로운 인생의 시작

2011년 여름, 과테말라에 살던 운드람 가족이 의사인 카를로스 운드람의 고등 과정 연구를 위해 미국으로 이주할 준비를 마친 무렵이었다.

카를로스 운드람은 이렇게 회상한다. “떠날 준비를 마치자 뭔가 저를 가로막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내 아드리아나도 같은 느낌이 있었고, 부부가 함께 기도를 드렸을 때 떠나지 말아야 한다는 확신이 들었다.

부부는 계획을 취소하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다. 4개월이 지나서야 이들은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

카를로스는 14살 때부터 교회 회원이었으나 21살에 대학 공부를 시작하면서 교회 활동에서 멀어졌다.

아드리아나는 교회 회원이 아니었지만, 오래전에 후기 성도와 결혼하기를 바란 적이 있었다. 아드리아나에게는 온화하고 자상하며 세심한 귀환 선교사와 결혼한 친구가 있었다. 아드리아나도 그런 남편을 얻고 싶었던 것이다.

교제를 시작할 무렵, 둘은 카를로스의 종교에 관해 이야기를 해 본 적은 없었다. 하지만 카를로스는 여러모로 아드리아나의 친구 남편과 품성이 비슷했다. 그는 그녀보다 우월한 듯 행동하지 않았다.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은 아드리아나는 아기를 목욕시키고 기저귀도 갈아 주는 남편이 고마웠다!

카를로스는 세 자녀가 자라기 시작하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그들은 한동안 일반 기독교 교회에 나갔지만 찾고자 하는 것을 찾지는 못했다. 하지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야 한다는 느낌은 계속되었다.

미국으로 이주할 계획을 취소한 운드람 가족은 창문을 새로 다는 등 집을 수리하기로 했다. 창문을 설치하려 그들의 집에 온 호세 메나를 보았을 때, 이 가족은 금세 그가 마음에 들었다. 어느 날, 그와 대화를 하던 중에 종교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다. 호세 메나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원이라고 했고 카를로스는 자신도 회원이지만 한동안 교회에 참석하지 못했다고 대답했다.

다음 작업 때, 메나 형제는 몰몬경 한 권과 가족 수만큼의 리아호나를 가져왔다. 카를로스는 리아호나를 읽는 가운데 익숙한, 영의 느낌을 받기 시작했다. 곧이어 메나 형제는 과테말라 케트살테낭고 성전 일반 공개에 가족들을 초대했다.

성전에 들어선 운드람의 자녀들은 이렇게 묻기 시작했다. “아빠, 어떻게 하면 이 교회 회원이 될 수 있어요?” 성전을 나서는 참에, 뒤쳐졌던 10살 난 막내아들 로드리고가 엄마의 도움으로 선교사 방문을 요청하는 카드를 작성했다.

그렇게 이 가족은 선교사들을 만나게 되었다. 카를로스는 이렇게 말한다. “가족들에게 침례 받으라며 부담감을 주고 싶지는 않았습시다. 그런데 가족들이 스스로 영을 느낀 것입니다.”

케트살테낭고 성전 헌납을 며칠 앞둔 2011년 12월 어느 날, 아드리아나와 자녀들은 침례를 받았다. 카를로스는 말한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은 가족들에게 침례를 줄 수 있게 해 주신 것입니다.” 1년 남짓 지난 뒤, 운드람 가족은 성전에서 인봉되어 모두가 큰 기쁨을 만끽했다.





## 인봉될 기회

비회원인 아나 빅토리아 에르난데스가 벨빈 칼데론과 결혼할 무렵, 벨빈은 회원이었지만 일요일에 일을 해야 해서 교회에 참석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벨빈은 다시 교회에 가야 한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 “저는 교회로 돌아가고 싶어서 직장을 포기했어요.” 부인은 다시 활동 회원이 된 남편이 겸손해진 것을 눈여겨보기 시작했고 가족은 더욱 하나가 돼 갔다.

벨빈은 아내가 복음에 관심을 두기를 소망하면서도 절대 그녀를 독촉하려 하지 않았다. 어느 일요일, 책장을 청소하던 아나 빅토리아는 교회 역사에 관한 벨빈의 책 한 권을 보았다. 호기심이 인 아나 빅토리아는 그 책을 읽기 시작했다. 그녀는 개척자들의 희생 이야기에 깊이 감동받았다.

몇 주 뒤 물문경에 관한 특집으로 구성된 2011년 10월호 *리아호나*가 도착했다. 다시 호기심이 동한 아나 빅토리아는 물문경을 읽기 시작했다. 그녀는 곧 그 책에 역사뿐 아니라 선지자의 말씀까지 담겨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남편과 자녀와 함께 성찬식에 참석하기 시작했다.

그런 다음, 가족과 함께 일반에 공개된 케트살테낭고 성전을 방문했다. 가족이 영원히 인봉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아나 빅토리아는 감동을 받았다. 아나 빅토리아는 말한다. “그 일로 저는 큰 영향을 받았어요. 가족과 함께 인봉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녀는 선교사와 토론을 시작했으며, 2011년 12월 7일에 침례 받았다. 나흘 뒤에 그녀는 성전 헌납식에 참석했고 2012년 12월에 칼데론 형제와 칼데론 자매는 자녀와 함께 성전에서 인봉됐다. 아나 빅토리아는 “내 가족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다는 깨우침”이 그녀에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한다. 벨빈은 가족이 인봉을 받기로 결정할 일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었다고 회고한다.

## 성전에 감동한 영

과테말라 케트살테낭고에 성전이 건축되자 모니카 엘레나 푸엔테스 알바레스 데 멘테스의 꿈이 이루어졌다. 그녀는 교회 개척자의 딸로, 아버지에게서 복음에 대한 사랑과 그 모든 축복을 배웠다. 어머니인 마그다 에스터 알바레스는 후기 성도 선교사들이 처음 과테말라에 도착하고 6년이 지난 1953년에 침례 받았다.

교회에서 자란 모니카는 훌륭한 남성인 에니오 멘테스와 결혼했는데, 그는 회원이 아니었다. 그는 교회 활동을 하는 아내와 딸을 지지하고 회원들을 존중했지만 자신이 침례 받는 데에는 관심이 없었다. 하지만 모니카는 언젠가 남편이 회원이 될 거라고 하시던 어머니의 말씀을 항상 염두에 두었다. 남편이 어떻게 개종하게 될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녀는 “저는 절대 신앙을 잃지 않았다.”고 말한다.

정기적으로 과테말라시티의 성전을 방문해 많은 축복을 누리던 모니카의 어머니는 2006년에 케트살테낭고 성전 건축이 발표되자 매우 기뻐했다. 하지만 마그다 알바레스는 불치병을 앓다가 케트살테낭고에 성전이 지어지기 전인 2008년에 세상을 떠났다.

모니카와 성인이 된 딸 모니카 에스터 멘테스 푸엔테스는 케트살테낭고 성전 일반 공개에서 함께 안내자로 봉사했다. 남편 에니오도 그들과 함께 성전 일반 공개에 참석했는데, 그 뒤로 가족들에게는 알리지 않고 두 번 더 혼자서 성전을 방문했다.

일반 공개 마지막 날 함께 성전을 나서면서 모니카와 그녀의 딸은 에니오에 관한 마그다 알바레스의 예언이 이루어질 날이

올까 하는 생각을 했다.

에니오는 늘 서로 상대의 신앙을 존중한다면 그는 자신의 교회에 다니고 아내와 딸은 그들 교회에 다니는 것이 문제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성전 일반 공개에 참석하면서 그는 생각이 많아졌다. 에니오는 회상한다. “저는 가족들에게는 얘기하지 않고 금식을 시작하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에니오는 산으로 올라갔다. 에니오는 그곳에서 사색하는 걸 좋아했었다. “주님께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고 여쭙었죠.” 사실 그는 무엇이 옳은지 이미 알았지만 여러 의심스러운 부분들을 해결해야 했다.

2012년 4월, 에니오는 침례를 받았다. 아내와 딸은 깊은 감동을 받았다.

멘테스 가족은 2013년 10월에 케트살테낭고 성전에서 인봉되었다. 멘테스 자매는 영원한 목표를 이루고 삶이 끝날 때까지 충실하기를 소망하는 기쁨이 크다고 말한다. ■



## 보석처럼 발하는 빛

**과** 테말라 케트살테낭고 성전 헌납 전 정초식에서 제일회장단 제2보좌 디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은 이렇게 약속했다. “이 성전을 통해 이 장소와 이 나라에 영원한 가족들이 생겨날 것입니다.”<sup>1</sup> 우흐트도르프 회장이 표현한 대로 “리하이의 아들과 딸들”<sup>2</sup> 가운데 이 성전은 희망의 신호가 되었다. 아울러 그는 성전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표현했다. “이곳은 보석처럼 아름다운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실로 이곳은 이 지역의 보석입니다.”<sup>3</sup>

## 과테말라 케트살테낭고 성전

2006년 12월 16일, 고든 비 힝클리(1910~2008) 회장이 건축 계획을 발표함.

2011년 12월 11일, 디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이 헌납함.

2011년 11월 일반 공개에 126,000명이 방문함.

전 세계에서 운영 중인 136번째 성전임.

과테말라의 두 번째 성전임.(첫 번째는 1984년 힝클리 회장이 헌납한 과테말라 과테말라시티 성전)

면적: 1,959제곱미터

성전 구역: 15개 스테이크, 7개 지방부, 회원 수 6만 명

주

1. Dieter F. Uchtdorf, Jason Swensen, “Quetzaltenango Guatemala Temple: ‘This Temple Will Bring Eternal Families to This Place and Country,’” *Church News*, Dec. 11, 2011, [ldschurchnews.com](http://ldschurchnews.com).
2. “Quetzaltenango Guatemala Temple: Dedicatory Prayer,” [ldschurchtemples.com/quetzaltenango](http://ldschurchtemples.com/quetzaltenango).
3. “Dedication Held for Quetzaltenango Guatemala Temple,” *Church Newsroom*, Dec. 11, 2011, [mormonnewsroom.org](http://mormonnewsroom.org).





# 가족 역사가 우리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바꾸는가

가족 역사를 탐구하고 조상들을  
위해 성전 의식을 하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은  
원대하면서도 친밀한 것임을 깨닫는다.

## 에이미 해리스

역사 및 계보학 교수, 브리검 영 대학교

**여**러 해 동안 성전에 갈 때마다 나는  
고조할머니 한나 머라이어 이글스  
해리스(1817~1888)를 떠올렸다.

할머니를 대신해 성전 사업을 해야 해서가  
아니었다.

머라이어(고조할머니는 그렇게 불리기를  
좋아하셨다.) 할머니는 우리 가족이 교회에  
다니게 된 이유 중 하나였다. 1840년에  
영국에서 침례를 받은 할머니는 미국  
일리노이 주 나부에서 엔다우먼트를  
받았고, 네브래스카 주 윈터쿼터스에서  
남편에게 인봉되었으며, 유타에서

돌아가셨다. 성전에서 나는 고조할머니께서 받아야 할 의식에  
대해 생각하기보다는, 그 의식들이 어떻게 시간과 공간을  
가로질러 할머니와 나를 묶어 주는가를 생각했다.

어릴 적에 나는 유타에서 고조할머니가 사셨던 마을에  
살았고, 나중에 나부의 윈터쿼터스와, 할머니가 태어나신  
영국의 작은 마을에도 가 보았다. 그리고 할머니가 움직이신  
거리만이 아니라 할머니와 내 삶의 거리도 굉장하다는 데에서  
깊은 인상을 받았다.

하지만 우리를 갈라놓는 시간과 공간, 환경의 거리에도  
불구하고, 인봉 성약과 할머니의 삶에 대한 깨달음 덕분에 나는  
고조할머니와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느낀다. 그런 유대감은  
좁게는 가족 역사 사업을 하는 이유를, 넓게는 성전 예배를  
하는 이유를 명확히 드러낸다.

우리는 가족 역사 탐구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의 창조는



광대하며 그 범위도 매우 넓다는 사실을  
배우고, 또 자비롭게도 그리스도의 속죄가  
우리 하나하나에 미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 가족 역사를 통한 더 큰 사랑

주님께서서는 자녀들을 위해 창조한  
세상에 대해 이렇게 가르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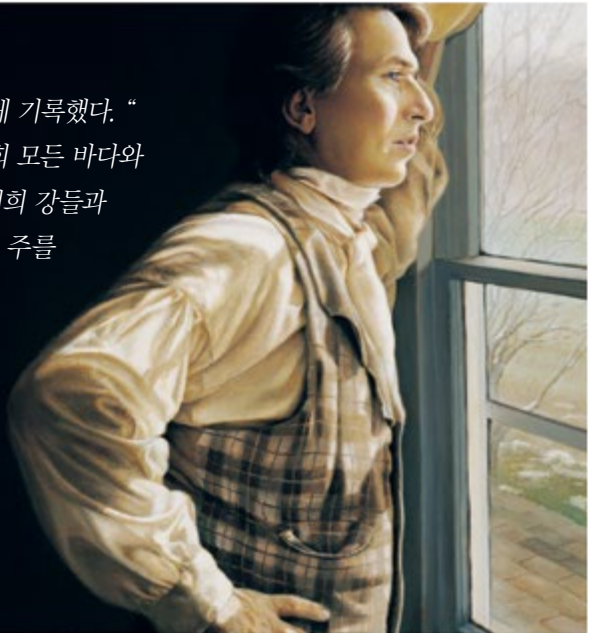
“사람에게는 셀 수 없는 것이니라. 그러나  
내게는 만물이 헤아려지나니, 이는  
그것들이 내 것이요, 내가 그것들을 알고  
있음이니라.”(모세서 1:35) 가족 역사 및  
성전 사업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업에 동참할 기회를 준다.<sup>1</sup>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가족과 이웃,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자비롭게 대하는 법을 배운다. 우리는 모두  
형제요 자매인 까닭이다.<sup>2</sup>

우리는 조상을 기억하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과  
창조가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는지를 인식한다.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시험받고 신앙을 행사할 장소를 창조하셨다. 하지만  
필멸의 삶 동안 하나님의 충만한 성약을 받을 기회를 얻는  
사람은 많지 않다. 따라서 우리는 자비로운 대리 사업을 통해  
주님께서 당신의 자녀를 모두 사랑하시며, 모든 사람이 필멸의  
삶 동안 처했던 환경에 관계없이 온전한 복음 축복을 받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분께서 방편을 마련하셨다는 것을  
깨닫는다.(니파이후서 26:20~28, 32~33 참조)

또한 조상에 대해 배우면서 이 세상에 모든 일이 쉽게  
풀리지는 않을 것이며, 이 타락한 세상에는 실망과 불평등이

죽은 자를 위한 구원의 교리에 대하여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기록했다. “산들은 기쁨으로 외치며, 너희 모든 골짜기는 크게 외칠지이다. 너희 모든 바다와 육지는 너희의 영원하신 왕의 기이한 일들을 이야기하라. 그리고 너희 강들과 시내들과 개천들은 기쁨으로 흘러내리라. 숲들과 들의 모든 나무는 주를 찬양할지이다. 그리고 너희 견고한 바위들은 기쁨으로 눈물을 흘릴지이다. 해와 달과 새벽 별들은 함께 노래할지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아들들은 기쁨으로 외칠지이다. 그리고 영원한 창조물들은 영원무궁토록 그의 이름을 선포할지이다.”  
(교리와 성약 128:23)



존재한다는 사실을 배우기도 한다. 하지만 조상들의 삶에 관해 배우고 그들을 위해 의식을 수행하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바깥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로마서 8:38~39 참조) 알게 된다.

우리 머라이어 할머니는 처음으로 이 진리를 들으셨을 때, 그것에서 힘을 얻으셨다. 미시시피 강과 부분적으로 완공된 나부 성전에서 처음으로 대리 침례가 이루어진 1840년에서 1841년 사이, 할머니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돌아가신 언니를 위해 침례를 받으셨다. 언니는 일찍이 선교사들이 영국에 도착하기 전에 사망했었다.<sup>3</sup> 나는 고조할머니를 만나 빈 적은 없지만, 성전 의식 덕분에 이 사랑이 죽음 너머에까지 계속될 수 있다는 지식과 동기간의 사랑을 할머니와 공유한다. 함께 그런 것을 공유하면서 할머니에 대한 사랑도 더 커지게 되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죽은 자를 위한 구원이라는 아름답고 자비로운 교리에 압도되다시피 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그는 이 교리를 이렇게 묘사했다. “영원한 복음에 속하는 모든 주제 중 이 가장 영광스러운 것”(교리와 성약 128:17): “산들은 기쁨으로 외치며, 너희 모든 골짜기는 크게 외칠지이다. 너희 모든 바다와 육지는 너희의 영원하신 왕의 기이한 일들을 이야기하라. 그리고 너희 강들과 시내들과

개천들은 기쁨으로 흘러내리라 숲들과 들의 모든 나무는 주를 찬양할지이다. 그리고 너희 견고한 바위들은 기쁨으로 눈물을 흘릴지이다. 해와 달과 새벽 별들은 함께 노래할지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아들들은 기쁨으로 외칠지이다. 그리고 영원한 창조물들은 영원무궁토록 그의 이름을 선포할지이다.”(교리와 성약 128:23)<sup>4</sup>

열의를 다해 언니를 대신해 침례를 받으러 가신 머라이어 할머니가 그랬듯, 다른 초기 성도들도 똑같은 기쁨을 느꼈다. 초기 성도 중 한 사람인 샬리 칼리슨은 이렇게 기록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이제 우리는 죽은 친구 모두를 위해 침례를 받고 우리가 힘 닿는 만큼 거슬러 올라가 그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 행할 수 있다.”<sup>5</sup>

#### 모두를 위하여, 한 사람을 위하여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가족 역사가 얼마나 광대한지는 개인에 따라 다르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배울 뿐 아니라 얼마나 깊은지도 배운다. 그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살피시기 때문이다. 떨어지는 참새를 보시고, 백 마리 가운데 한 마리 길 잃은 양을 찾으시는 주님께서는(마태복음 10:29; 누가복음 15:4 참조) 모두를 한꺼번에 구속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상 성역 기간에 백성들을 보살피실 때나 풍요 땅 성전에 모인 백성들을 축복하실 때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을 헤아리시며 구속하십니다.(제3니파이 17장 참조)

마찬가지로 주님께서서는 각 개인을 위한 대리 사업의 기록을 작성하는 세세한 기준을 초기 성도들에게 가르치셨다.(교리와 성약 128:1~5, 24 참조)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이름 목록만 작성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조상 한 분 한 분을 확인하고자 애써 탐구하는 것이다. 이 사업을 통해 우리는 어렵듯이나마 하나님의 자비와 동정심, 그리고 한 영혼의 가치를 깨닫는다.

또한, 조상들의 인생 이야기를 탐구하는 가운데, 결점이나 흠이 있더라도 그들을 사랑하는 법을 배운다. 필멸의 삶에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우리 조상들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를 배우면서 그분들에 대한 연민을 느끼게 된다. 우리는 이런 과정을 통해 가족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모두를 포함하는 산 자들을 우리 조상들처럼 사랑하는 능력을 단련하게 된다. 성약과 의식을 받을 기회도 없이 지상에 왔던 대다수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하늘 부모의 자녀라는 사실을 더욱 깊이 깨달으면,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이에게 인생이란, “하나님 …… 께서 인간들에게 주시는 빛을 인간들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sup>6</sup> 신앙과 용기를 시험받는 기간임을 이해하게 된다.

가족 역사 사업의 정제된 영향으로 우리는 사랑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우리와 매우 다른 삶을 살았던, 오래전에 죽은 이들을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깨우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하여 우리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의 결점을 가엾게 여기게 되지 않겠는가?

유일하게 남겨진 우리 머라이어 할머니의 사진을 보는 사람들은 할머니가 얼마나 엄하고 냉정해 보이는지 한마디씩 한다. 그러면 할머니를 잘 아는 나는 곧바로 할머니 편을 든다.

어린 자녀가 있는 젊은 어머니로서 세번 강을 따라 걸어난 여인이 있었다.(세번 강: 영국 웨일스 중부로부터 잉글랜드 서부를 거쳐 브리스톨 만으로 흐르는 강-유크인) 그 여인은 대양을 가로질러 항해를 하던 중 네 번째 아이를 낳았다. 그리고 남편이 전쟁터에 나간 사이에 어린 자식을 잃었다. 그녀는 미국 서부 사막의 새로운 집까지 1,609 킬로미터를 걸어서 횡단했다. 그 여인은 일을 하고, 성약을 맺고, 농사를 짓고, 사랑했다. 나는 그 여인을 알게 되면서 그녀를 비롯한 모든 자녀에 대한 하늘 부모의 사랑을 맛보게 되었다.

### 가족 역사-원대한 시각과 자비로운 손길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만이 가족 역사의 일은 아니다. 오래된 필적을 읽어 내거나 세밀하게 기록하고 출처를 밝히는 것만으로 가족 역사를 설명하는 건 부당하다. 그런 것들은 가족 역사에 필요한 기능이나 도구일 뿐 가족 역사의 핵심이 아니다. 또한 왜 후기 성도가 조상들에 대해 탐구하는지를 뒷받침하는 요소도 아니다. 요컨대 가족 역사를 통해 우리는 창조와 구속을 원대한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으며 동시에 그리스도의 속죄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자비롭게 미치는 것임을 깨닫는다.

우리 조상을 탐구하여 우리 마음과 생각에 그와 유사한 영향이 미칠 때, 우리는 “바닷가 모래와 같이 무수[한]”(모세서 1:28) 사람들 모두가 하늘 부모의 자녀로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음을 인식할 수 있다. 조셉이 해의 왕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심히 아름다운”(교리와 성약 137:2) 문을 통과하는 것에 비유한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광대하며 개별적인 사랑으로 구속받은 그들과 함께 구원을 받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겠는가? 나는 그 문에서 머라이어 할머니를 만나 뵈기를 고대한다. ■

### 주

1.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2007년), 473쪽 참조.
2. 러셀 엠 넬슨 장로는 특별한 성신의 징후로 나타나는 엘리야의 영이 하는 일 중 하나는 “가족의 거룩한 본질을 증거해” 주는 것이라고 가르쳤다. 이는 지상에서 이루는 가족 관계의 신성한 본질뿐 아니라 모든 하나님 자녀의 신성과 잠재력을 의미하는 가르침이다. 러셀 엠 넬슨, “새로운 추수의 시기”, 성도의 빛, 1998년 7월호, 34쪽 참조. 또한, 리차드 지 스크트, “죽은 자를 구속하는 기쁨”, 리야호나, 2012년 11월호, 93쪽 참조.
3. 이디스 이글스 자매를 대신해 침례 받은 머라이어 해리스(Mariah Harris baptized for sister Edith Eagles), 1841,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내부 대리 침례 기록(Nauvoo Proxy Baptism Records), 1840~1845, 미국/캐나다 가족 역사 도서관, item 2, volume A, page 42.
4. 스미스 가족들의 죽음이 죽은 자를 위한 구원에 관한 조셉 스미스의 탐구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더 깊은 내용을 보려면 다음 문서를 참조한다. Richard E. Turley Jr., “The Latter-day Saint Doctrine of Baptism for the Dead” (BYU family history fireside, Nov. 9, 2001), familyhistory.byu.edu.
5. Sally Carlisle, Steven Harper, *Making Sense of the Doctrine and Covenants: A Guided Tour through Modern Revelations* (2008), 470~71.
6.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 404; 또한 신명기 8:2; 모로나이서 7:16; 교리와 성약 76:41~42; 127:137:7~9; 아브라함서 3장 참조.



닐 엘 앤더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 성전과 기술이 있는 “내 날들”

지금은 여러분이 조상들에게 더 온전히  
마음을 돌리고 여러분의 가계에 속한 수백만 명에게  
구원 의식을 행해야 할 여러분의 날들입니다.

**여**러분이 왜 역사상 다른 시대가 아닌 지금  
이 지상에 보내졌는지 궁금했던 적이  
있습니까? 모세 옆에 함께 서거나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친구였다면 어땠을까요? 선지자  
조셉이 거닐었던 나무에 살거나 솔트레이크 밸리에  
새로 정착하고자 손수레를 끌고 밀며 1,600킬로미터를  
횡단한 청소년들 사이에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때로 우리는 과거의 시대나 다른 장소를 떠올리며  
“왜 나는 거기 없었을까? 왜 지금 여기에 있는 걸까, 왜  
지금이지?” 하고 묻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성전에서 수행하는  
침례 수만큼 많은  
이름을 준비하겠다는  
개인적인 목표를  
세우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삶이 펼쳐지는 시간과 장소에 대해  
의문을 던진 사람은 여러분만이 아닙니다.  
미대륙에 살았던 한 선지자도 똑같은 의문을  
느꼈습니다. 그의 이름은 니파이로, 몰몬경  
서두에 나오는 니파이가 아니라 힐라맨 이세의  
아들이며 선지자 엘마 이세의 증손자인  
니파이입니다.

니파이가 살던 세상에서는 돈과 권력과  
인기가 옳은 일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많은  
백성이 공공연하게 계명을 등한시했습니다.  
거짓말을 했고, 남의 소유물을 훔쳤으며, 순결의  
법을 어겼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  
조롱당하고 부당한 대접을 받았습니다.(힐라맨서  
7:4~5, 21; 8:2, 5, 7~8 참조)

“니파이가 이를 보고 그 마음이 속에서부터  
슬픔으로 복받친지라, 이에 그가 그의 영혼의  
고뇌 가운데 부르짖기를,

아아, 내가 내 날들을 나의 조상 니파이가  
예루살렘 땅에서 처음 나왔던 그 시대에 보낼  
수 있었다면, 그리하여 약속된 땅에서 그와  
함께 기뻐할 수 있었다면, 그때 그의 백성은  
쉽게 권함을 받았으며, 굳건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으며, 죄악을 행하는 데에 더디 이끌렸으며,

주의 말씀에 속히 귀를 기울였도다-

참으로 만일 그 시대에 내 날들을  
보낼 수 있었다면, 그러면 내 영혼이 내  
형제들의 의로움으로 인하여 기쁨을 누렸을  
것이라.”(힐라맨서 7:6~8)

니파이는 하나님의 훌륭한 선지자였습니다만  
잠시 자신이 왜 자신의 시대에 지상에 살고  
있는지 의문을 품었습니다. 그는 머지않은  
미래에 구주께서 지상에 오시리라는 것을  
알았지만, 잠시나마 그 순간에는 곧 일어날 그  
아름다운 사건들이 그의 뇌리에서 아주 멀리  
사라진 듯합니다.

그가 말한 그때에서 단 20년만 지나면,  
어둠이 없는 밤이 오고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이며, 55년 내에는, 부활하여  
영화롭게 되신 구주께서 하늘로부터 풍요 땅  
성도들에게 내려 오실 것이었습니다. 니파이의  
아들이 그곳에 있을 것이며, 구주께서 그에게  
친히 말씀하시고 서반구의 열두 제자 중 한  
사람으로 그를 성임하실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한 사람씩 나아오게 하여 직접  
그분의 손과 발의 못 자국을 만져 보게 하신  
2,500명의 성도들 가운데 니파이의 딸들과

아들들과 손자 손녀들이 있었을 것임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구주께서 한 명씩 축복하셨던 어린아이들, 즉 불에 둘러싸여 천사들의 성역을 경험한 어린아이들 가운데는 니파이의 증손자 증손녀들이 있었으리라는 것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니파이가 자신의 의로운 가족과 친구들의 미래를 명확히 보았다면, 지상에서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를 바꾸고 싶어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감사하게도, 니파이는 여전히 의로웠으며, 용감하게 백성들을 가르쳤고, 놀라운 기적을 행했으며, 선지자 사무엘과 함께 임박한 구주의 탄생에 대해 예언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니파이를 영원히 축복하시겠다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힐라맨서 10~11장; 16장 참조)

자신이 사는 시대와 장소에 대해 의문을 던졌지만, 그는 매우 힘있는 말씀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보라, 내게는 이 시대가 내 날들이요”(힐라맨서 7:9).

사랑하는 젊은 형제 자매 여러분, 이 시대는 여러분의 날들입니다. 여러분은 구주께서 지상에 돌아오시기 전 마지막 시대에 살도록 선택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오실 정확한

날짜나 해를 알지는 못하나, 그분의 재림을 예고하는 징조들은 확연히 볼 수 있습니다.<sup>1</sup>

니파이가 백성들이 구주를 맞이하도록 준비하는 데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를 깨달은 것처럼, 언젠가는 우리도 구주의 재림을 위해 이 세상을 준비하면서 이 시대에 사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축복이었는지를 돌이켜보며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어려움과 장애물 너머로 우리의 중요한 목적과 앞으로 올 영광스러운 날들을 바라봅시다. 각자 “이 시대가 내 날들이요”라는 니파이의 말씀을 되뇌어 봅시다.

여러분의 날들인 이 시대에,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첫째,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짊어져야 합니다. 그분에 대해 배우며, 여러분을 향한 그분의 사랑과 한없는 선함에 대해 배우고, 언제나 그분의 계명을 지키겠다고 결심하십시오. 여러분은 구주를 따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봉사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받고 주변 사람들을 복돋우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갈 특권을 누릴 수 있습니다.



### 성스러운 의무

어떤 경험은 특정 세대를 위해 예비되기도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받은 성스러운 의무 가운데 한 가지로, 이전 세대에는 주어진 적이 없는 일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우리는 전 세계 곳곳에서 성전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4년 11월 16일, 애리조나 피닉스 성전이 헌납되면서 이제 전 세계에서 운영 중인 성전은 144곳이 되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전 세계에 있는 성전은 열세 곳뿐이었습니다.

제 아내인 캐시 앤더슨 자매는 미국 플로리다 주에서 자랐습니다. 그녀가 다섯 살일 때, 제 장인 장모님은 영원한 가족으로 인봉 받기 위해 가족들을 성전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들은 성전에 가기 위해 6일 동안 4천 킬로미터 이상을 차로 달려 솔트레이크시티까지 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플로리다에 있는 제 처가는 솔트레이크 성전보다 가까운 성전이 47곳이나 있습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은 교회의 청소년들에게 성전에 자주 방문하여 죽은 자를 위한 침례를 행하라고 권고하십니다.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 대신 젊은 친구 여러분, 늘 성전을 목표로 삼으십시오. 성전

안으로 들어가고, 거기서 성스럽고 영원한 축복을 받는 데 방해가 되는 일은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정기적으로 성전에 가서 죽은 자를 위한 침례를 받는 청소년, 즉 아침에 매우 일찍 일어나 등교하기 전에 침례 의식에 참석하는 청소년들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는데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sup>2</sup>

여러분이 주님의 선지자가 하신 말씀에 응했기에, 해마다 휘장 저편에서는 수백만 명이 침례를 받아들일 기회를 얻습니다. 지상에 살았던 어떤 세대도 여러분처럼 주님의 집에 들어가, 앞서 살았던 이들의 구원을 돕는 그런 큰 특권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거룩한 성전 사업을 완수할 수 있는 필수적인 첫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보다 앞서 살았던 우리 가족들을 찾아내야 합니다.

선지자 조셉을 처음 방문했을 때 모로나이는 “자녀들의 마음은 그들의 아버지들에게로 돌이키리라”(교리와 성약 2:2)라고 가르쳤습니다. 후에 선지자 조셉은 교회 회원들이 “시온 산의 구원자”가 되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시온 산의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까?” 조셉은 물었습니다. “성전을 짓고 …… 그들의 돌아가신 선조들을 위해 모든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이 사업을 세대에 걸쳐 가족을 이어 주는 “사슬”이라 불렀습니다. (교리와 성약 128:18 참조)







의식과 침례, 확인, 씻음, 기름 부음, 성임 및 인봉 권능을 그들 머리 위에 받아 ……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묶어 주고 자녀를 아버지에게 묶어 주는 사슬이 있는 것입니다.”<sup>3</sup>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이 사업을 세대에 걸쳐 가족을 이어 주는 “굳게 매는 연결”이라 불렀습니다.(교리와 성약 128:18 참조) 조셉의 시대에는 뜨거운 가마에서 두 조각의 금속을 달구어 부드러워지면, 아직 구부릴 수 있는 상태일 때 둘을 용접하여 식히고 굳혀, 떨어질 수 없는 사슬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모두를 영원히 함께 묶어 주는 강력한 영적인 용접의 중요성은 경전에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아니면 우리가 온전함을 이룰 수 없고, 우리가 아니면 그들도 온전함을 이룰 수 없느니라.”(교리와 성약 128:18)

과거에 이렇게 가족의 이름을 찾고, 문서로 정리하고, 성전에 가져가는 일은 주로 교회의 나이 많은 회원들의 몫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대개는 기록이 담긴 커다란 마이크로필름 뭉치들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즉, 날짜와 장소를 면밀히 살피고, 구하기 쉽지 않은 두꺼운 역사책을 뒤지고, 때로 먼 지방으로 묘지를 찾아가야 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조상을 찾을 수 있게 된 것은 이제 겨우 몇 년밖에 되지 않았으며, 지난 몇 개월 동안에도 엄청난 발전이 있었습니다. 몇 개월 후면 또 다른 발전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세대가 성전 방문에 참으로 헌신하는 사이, 앞으로 몇 달, 몇 년이 흐르면 여러분은 이름을 찾아서 성전에 가져가는 일도 훌륭히 해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성전에서 수행하는 침례 수만큼 많은 이름을 준비하겠다는 개인적인 목표를 세우기를 바랍니다.

(lds.org/topics/family-history/temple-challenge?lang=kor&clang=kor에서 이 도전 과제를 시작하십시오.)

성전 의식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고, 그들이 누구인지 알며, 그들이 성스러운 의식들을 받는데 참여하는 일에는 강력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시온 산의 구원자”가 되는 방법입니다.(오바다 1:21 및 교리와 성약 103:9 참조) 오직 영적인 느낌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을 가족, 즉  
우리 이전에 살았던  
분들과 이후에  
살게 될 사람들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우리가 어떻게 모두를  
이어 주는 놀라운  
연결고리가 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기쁨과 만족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영원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 중 일부는 여러 세대에 걸쳐 교회에 속해 있어서 직계 조상의 대부분이 이미 성전 의식을 받았습니다. 2013년에 처음으로 저는 온라인 부채꼴 가계도에서 제 조상들의 이름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중에는 제 이름을 따온 증조할아버지 닐 앤더슨과, 집안에서 처음으로 물문경 선지자의 이름을 붙여 준 모로나이 스톱스 고조할아버지도 계셨습니다. 저는 저희 가문에 속한 수십 명의 친척들 사진을 온라인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증조할아버지의 얼굴을 아십니까?

### 친척 찾기

여러분의 가계도가 제 가계도만큼 완성되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첫 번째 책임은 할 수 있는 만큼 빈 칸을 채우는 것입니다. 매달 더 많은 정보가 추가되어 검색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계도가 제 것만큼 완벽하다 해도 여러분에게는 여전히 매우 중요한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 이어집니다. 구주께서 돌아오셨을 때에도 완료되지 않을 것입니다.

가계도가 완성된 듯 보이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가계를 찾는 것을 돕고, 우리 가계도의 구성원들과 관련 깊은 사람들을 찾습니다. 이 일을 우리는 “친척 찾기”라고 부릅니다.

어떻게 친척을 찾을 수 있을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가계도를 보고 5대조 할아버지 할머니들과 가까운 사람들을 찾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제 가계도에서 프랜시스 보웬 에번즈 할머니까지 올라가 할머니의 형제자매들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할머니에게는 다섯 명의 자매와 두 명의 형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친척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친척을 찾는 두 번째 방법은 주변 사람들을 돕는 것입니다. 먼저, 나의 가족이라는 특별한 책자로 시작합니다. 만일 가족 역사를 처음 시작하는 가족이라면, 그 책자의 빈 곳부터 채우십시오. 또는 여러분의 가계도가 제 것처럼 생겼다면, 여러분이 해 왔던 것처럼 교회 가족 역사 사업에 참여하도록 책자를 새로운 회원이나 다른 사람에게 가져가서 그들이 자신의 가족을 찾도록 돕습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은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성전에 데려가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여러분의 형제 자매이지만, 우리는 그분들을 여러분의 “친척들”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가정 안에서 형제와 자매입니다. 우리 가족은 무작위로 함께 묶인 것이 아닙니다. 몬슨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조상에 대하여 배울 때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어떤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sup>4</sup>

자기 자신을 가족, 즉 우리 이전에 살았던 분들과 이후에 살게 될 사람들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우리가 어떻게 모두를 이어 주는 놀라운 연결고리가 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그들을 찾아 성전에 이름을 가져갈 때, 우리는 그들이 우리 없이는 언지 못하는 것을 주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그들과 연결되고, 주님은 우리가 하는 일의 영원한 중요성을 그분의 영을 통해 우리의 영혼에 확신시켜 주십니다.

몬슨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에서 받는 영원한 축복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희생도 감수할 수 있으며, 어떠한 대가도 감내할 수 있고, 어떠한 고생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합니다.”<sup>5</sup>

이 말씀에 덧붙이자면, 우리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가족들이 거룩한 성전에서 자신을 위해 행해진 의식들을 받아들일 때, 높은 곳에서 오는 축복과 권능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지상 생활은 마쳤지만 그들의 삶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온 산 위의 구원자”가 되어 그들과 영원히 결속됩니다.

여러분은 성전과 기술의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지금은 여러분의 날들입니다. 여러분이 조상들에게 더 온전히 마음을 돌이켜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이 이 성스러운 사업에 기여하고자 할 때, 구주에 대한 여러분의 지식과 신앙이

증가하고, 휘장 너머에서 계속되는 삶에 대한 더 분명한 간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저는 휘장 저편에서도 삶이 지속된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은 유혹에 둘러싸이더라도 보호받을 것이며, 구주의 재림에 대비하여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을 준비시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주이자 구속주이십니다. 그분은 살아 계십니다. 그분의 영광스러운 속죄를 통해 성전의 이 의식들이 영원히 지속됩니다. ■

2014년 2월 8일 유타 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열린 2014년 RootsTech 가족 역사 대회와 관련하여, 청소년을 위한 가족 발견의 날 영적 모임에서 전한 말씀, “우리의 친척들을 찾아서” 중에서 발췌함. 자세한 내용은 [lds.org/topics/family-history/family-discovery-day?lang=kor](https://lds.org/topics/family-history/family-discovery-day?lang=kor) 참조. (2015년 2월 말씀은 [lds.org/discoverfamily](https://lds.org/discoverfamily)에서 참조.)

#### 주

1. 맬린 에이치 옥스, “재림을 위한 준비”, 리아호나, 2004년 5월호, 7-10쪽.
2. 토마스 에스 몬슨, “거룩한 성전은 세상을 비추는 등대입니다”, 리아호나, 2011년 5월호, 93쪽.
3.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2007), 473쪽.
4. 토마스 에스 몬슨, “변하는 시대를 위한 변치 않는 진리”, 리아호나, 2005년 5월호, 21쪽.
5. 토마스 에스 몬슨, “거룩한 성전은 세상을 비추는 등대입니다”, 92쪽.

### 친척 찾기

여러분의 가계도가 가득 차 보입니까? 다음 단계를 따라 더 많은 친척을 찾으십시오. (1) FamilySearch.org에 로그인한 후 ‘패밀리 트리’를 클릭합니다. 화면에서 ‘부채꼴 가계도’를 선택합니다. (2) 부채 모양에서 바깥쪽에 있는 가족 이름 위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고 작은 부채 모양 아이콘을 클릭하면 그 사람이 중심에 위치하게 됩니다. (3) 화면 왼쪽 상단 선택항에서 ‘가계도 보기: 부채꼴’을 ‘가계도 보기: 후손’으로 변경한 후, 그 오른쪽 ‘1 2 3 4’에서 ‘4’를 클릭합니다. (4) 화면에 나타난 4세대 개인 이름을 클릭한 후 성전 아이콘을 찾아봅니다. 이 아이콘은 열거된 친척이 의식이 필요할 수도 있음을 나타냅니다. FamilySearch가 제안한 경우라면, 중복된 이름인지 확인합니다. (5) 부채꼴 가계도 바깥쪽 부근을 다 하고 마치면, 한 세대를 거슬러 올라가서 이전 단계를 되풀이합니다.

# 우리의 여정이 끝나기까지



리처드 엠 롬니  
교회 집사

**나**는 92세인 우리 아버지 폴 롬니가  
일요일 오후 어디에 계실지를  
전혀 염려하지 않는다. 아버지는  
솔트레이크시티에 있는 소속 와드에서  
예배당을 정리하고 계실 것이다. 그것은 한  
시간이 조금 넘게 걸리는 일이다.

아버지는 보행 보조기에 몸을 의지하여  
복도를 지나다니신다. 그리고 의자들  
사이로 움직이시면서 의자에 몸을 기대어  
떨어진 종이를 줍고, 찬송가를 가지런히  
정리하며, 카펫 위에 떨어진 시리얼이나  
빵 부스러기를 주우신다. 아버지는  
1934년에 집사로 성임되신 이후로 몇 번을  
제외하고는 매주 일요일에 그 일을 해  
오셨다.

## 예배를 준비하기 위하여

“그 일을 하는 건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 드리고 싶어서지.”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예배당이  
깨끗하면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데 도움이  
된단다.”

집사 시절, 폴 롬니는 자신의 의무  
중 하나가 와드의 현세적인 필요를  
돌보는 것임을 배웠다.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난 그렇게 하는 방법 중  
하나가 모임 후에 청소를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단다. 그래서 그 일을 시작했지.  
그때부터 늘 그렇게 해 왔어.” 가끔  
토요일에 나와 집회소 청소를 맡은

**폴 롬니는 예배당을 정리함으로써 주님을 향한  
사랑을 보인다.**

## 잘 걷디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신앙도 깊어진다.

사람들을 도우신 적은 있지만, 그 일이 공식적인 임무나 부름이 된 적은 없었다. 때로는 우리 형제들이 아버지를 도왔다. 여러 해 전에 감독단에 계실 때에는 집사들에게 청소를 함께 하도록 장려하셨다.

그러나 대개는 그저 그날의 마지막 모임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셨다. 그런 후 남의 눈에 띄지 않게 질서의 집을 유지하는 데 자신의 작은 몫을 바치셨다. 아버지는 충실하게, 일요일마다 그 일을 하신다.

아버지의 모범은 나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언제나 봉사할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또, 경건과 예배를 준비하는 것에 대한 가르침이 되었다. 이와 더불어 이 삶의 여정에서 앞서 계신 분들에게 우리가 배울 것이 많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었다.

### 변화하는 역할

나는 같은 동네에 사는 이웃에게서도 비슷한 교훈을 배웠다. 97세인 래리 모건과 94세인 그의 부인 엘리자베스는 함께한 인생에서 많은 역할을 훌륭히 해내었다. 그들은 남편과 아내, 아버지와 어머니로서 함께 일했으며, 네덜란드에서는 부부 선교사로서 함께 일했다. 래리는 72세에 감독단 보좌로 부름받았다. 당시 우리 이웃에는 홀로

되신 과부가 79명이 계셨는데, 감독님의 지명에 따라 래리와 엘리자베스는 그들 모두를 방문했다.

그리고 40년이 넘도록 래리와 엘리자베스는 금식 주일마다 자녀들과 함께, 그리고 이제는 손자 손녀들과 증손자 증손녀들까지 같이 저녁에 모여 금식을 마친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시간을 가족들이 즐거워했으면 했죠. 그리고 모두들 먹는 것을 좋아해요. 우리는 저장해 둔 밀이 많았요. 그래서 직접 밀을 갈아서 와플을 만듭니다. 그리고서는 모두들 배가 부를 때까지 먹지요.” 모두가 함께하는 이 간단한 식사로 이 가족은 변함 없는 결속력을 키울 수 있었다.

요즘엔 음식 만드는 일이 자녀와 손자 손녀들의 몫이 되었다. 엘리자베스는 치매에 걸렸지만, 가족이 가까이 있음을 안다. 그녀는 함께하는 가족들에게 일일이 “사랑한다.”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한다. 식사가 끝나고 모두 돌아가고 나면 엘리자베스는 래리가 경건과 교회 잡지를 큰 소리로 읽어 주는 것을 즐겁게 듣고,

남편이 옆에 있다는 것에서 마음의 안정을 얻는다.

래리는 약 2년 전에 넘어지면서 척추를 다쳤다. 그래서 더 이상 걷지를 못한다. “저는 ‘왜 하필 나야?’ 하는 생각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요.” 그는 말한다. “저는 신권 축복을 받았어요. 인생에서가 아닐지라도 다시 걷게 되리라는 축복을 받았지요. 속죄와 부활이 있기에, 정말 그렇게 될 거란 걸 저는 압니다. 저는 만사가 우리 하나님

**래리와 엘리자베스 모건은 서로를 향한 끊임없는 헌신을 보여 준다.**





아버지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그분의 뜻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분의 도움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더 큰 시각으로 바라보며**

머를 크리스텐슨을 처음 만난 것은 유타 주 브리검시티의 요양원에서였다. 우리 가족의 친구인 이 할머니는 백한 번째 생일을 앞두고 있었다. 머를 할머니는 추억이 담긴 책과 사진으로 둘러싸인 채 방에 앉아 있었다. 할머니가 보여 주신 두 장의 사진이 특히

인상적이었다.

오래전에 찍은 첫 번째 사진은 할머니의 딸을 비롯한 세미나리 학생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머를 할머니는 “맨 앞줄에 있는 분이 아이들의 교사였던 보이드 케이 팩커라요.”라고 말씀하셨다. “어려 보이지만, 정말 훌륭한 선생님이었지.” 지금 그는 십이사도 정원회의 회장이다.

머를 할머니는 어린 시절에 소아마비를 앓으셨다. “십 대 소녀일 적에는 그걸 감당하기가 쉽지 않았어. 그러기 위해선 내 신앙이 커져야 했지. 하지만 그때 주님께서 도와주셨지. 지금도 나를 도와주고 계시고.” 어릴 때 소아마비를 앓았던 사람들은 종종 나이를 먹으면서도 후폴리오 증후군으로 고생하고 근육 약화나 피로 같은 증상을 겪는다. 머를 할머니도 그러셨다.

머를 할머니는 피로를 느낄 때면 앨마서 7장 11~12절을 떠올리신다. 구주께서 “자기 백성의 고통과 질병을 …… 짊어지시리니 …… 자기 백성을

그들의 연약함을 좇아 어떻게 도울지 아시고자 하심이니라.” 그러고는 이렇게 말한다. “내가 겪는 일을 주님께서 아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거야. 하루씩 버티고, 기도하고, 교회에 나가고, 사람들을 친절히 대하는 거지. 버틸 수 있게 도와주는 것들은 그렇게 소중한 것들이거든.”

머를 할머니가 스크랩북에서 꺼내 보여 주신 두 번째 사진은 할머니의 다섯 딸 중 세 딸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할머니에게는 딸들만 있었는데, 세 딸은 1936년에 브리검시티 최초의 세 쌍둥이로



**소망의 유산**

“영생의 은사를 상속받는 여정의 어느 곳에 있더라도 여러분은 많은 이에게 더 큰

행복으로 이르는 길을 보여 줄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성약을 맺고 지키는 쪽을 선택할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본을 따르려는 사람들에게 소망의 유산을 남기는 것도 함께 선택하는 것입니다.”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제일회장단 제1보좌, “참으로 값진, 소망의 유산”, 리아호나, 2014년 5월호, 22쪽.

머를 크리스텐슨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시 만나게 될 것을 알기에 기쁘게 살아간다.



루세트와 알파 파세라우브는 교회 안에서 함께해 온 삶을 되돌아본다.

태어났다. 머를 할머니는 “세 쌍둥이를 갖는 것이 당시엔 아주 드물었어.”라고 말했다. 의학이 지금만큼 발달하지 않았을 때이고, 아기 중 둘은 출생 당시 심장에 문제가 있었다. 결국 사론은 1958년에, 다이앤은 1972년에 사망했다. 제니스는 심장에 문제가 없었지만, 1992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나는 내 아이들을 모두 사랑해. 사위들과 손자 손녀들과 증손자 증손녀들도 모두.” 하지만 그녀는 26년 전에 떠난 남편 드비어를, 그리고 살아 있다면 이번 4월에 79세가 되었을 세 쌍둥이를 그리워하고 있다.

그래서 다시 엘마서로 눈을 돌린다. “또 그가 사망을 겪어지시리니, 이는 그의 백성을 결박하는 사망의 줄을 푸시려 함이요”(엘마서 7:12)

그리고 이렇게 말한다. “나는 구주께서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을 알아. 그래서 남편과 세 쌍둥이와 우리 가족을 모두 다시 만나게 될 것을 알지.” 그 확신은 날마다 더 강해진다고 그녀는 말한다.

크리스텐슨 자매는 이 기사가 작성된 후인 2014년 9월에 세상을 떠났다.

### 함께 걸으면서

스위스 로잔에 사는 알프와 루세트 파세라우브는 함께 산책하는 것을 좋아한다. 좋아하는 산책길 중 하나는 제네바 호숫가를 따라 난 길인데, 높다란 알프스 산맥이 내해를 굽어보는 곳이다. 몇 년 전, 산책을 하던 파세라우브 부부는 저녁 시간을 회상에 잠겨 보냈다.

일흔여덟인 알프는 이렇게 말한다.

“사춘기 소년이었던 나는 진리를 찾고 있었지. 늘 스스로 이렇게 말했어. 만일 하나님이 계시다면 분명 지상에 살아 있는 선지자를 두셔야 한다고. 늘 그 생각이 떠나질 않았어.”

대학에 들어간 후, 알프는 한 친구에게서 후기 성도 선교사들이 가르치는 무료 영어 회화에 같이 가자는 권유를 받게 된다. 그리고 어느 날, 수업 후에 선교사들이 그를 교회로 초대했다.

“처음 교회에 간 날, 주일학교 공과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이 모두 개별적 존재라는 내용을 다루는 거야. 교사는 우리가 현대의 선지자인 조셉 스미스 덕분에 하나님에 관해 많은 것을 알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지. 또 오늘날 살아 있는 선지자들이 있다고 말했지. 정말 놀라웠어. 정말 오랫동안 마음에 품고 있던 내 생각들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었거든.” 얼마 안 있어 그는 교회에 가입했다. “그때 이후로 날마다 나는 지상에 선지자들이 있다는 것에 큰 기쁨을 느껴 왔지.”

80세인 루세트는 어린 시절에 제2차 세계 대전을 경험했다. “열네 살 때부터 일을 해야 했고, 그 후론 학업을 할 수가 없었어. 하지만 교회가 나에게 계속

배울 기회를 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 전임 선교사로 봉사한 후 그녀는 알프와 교제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성전에서 결혼하여 자녀들을 키웠고, 이제는 그동안 걸어온 여정을 함께 돌아본다. 루세트는 초등학교 회장으로 14년을, 알프는 스테이크 고등평의회원으로 32년을 봉사했다. 그들은 정규적으로 성전에 가고,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을 방문하고, 언제나, 언제나 그들이 어릴 때 받아들인 진리에 감사하며 살았다.

루세트는 말한다. “우리가 함께 걸을 수 있었던 것은 축복이었다오.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을 땀 때마다 우리의 신앙도 더 강해졌지.”

나는 나보다 연배가 많은 이 친구들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 래리와 엘리자베스는 삶에서 변화하는 자신의 역할을 품위 있게 주님의 도움으로 해내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머를 할머니는 끝까지 견디기 위한 신앙을 오늘, 구주를 믿는 신앙 위에 세워야 한다는 것을 보여 주신다. 파세라우브 부부는 매일 복음 안에서 기쁘게 생활한다. 이 모든 이야기에서 나는 내 여정이 끝나는 날까지 나에게 힘이 되어 줄 교훈들을 얻는다. ■

## 의사 선생님이냐, 장로님이냐

**고**등학교를 마쳤을 때, 선교 사업을 나가려면 최소한 2년을 기다려야 했다. 그래서 대학 공부를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계산해 보니 열심히 하면 약 6년 안에 의과대학을 마칠 수 있을 것 같았다. 선교 사업은 그다음에 하기로 계획했다.

스물네 살에 의과대학을 마친 후, 나는 더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수련 과정을 시작했다. 그 시간 동안 나는 고민에 빠졌다. 정말 선교 사업을 해야 하는가, 아니면 계속 일을 해야 하는가? 부모님과(최근에 선교 사업을 마치고 돌아온) 형과 감독님, 그리고 우리 지역 선교부 회장단 보좌로 봉사하시는 형제님까지 모두 나에게 선교사 봉사를 권유했다.

그분들의 말이 옳다고 믿었지만, 의사로서 창창한 미래를 미루는 건 힘든 일이었다. 나는 영감을 구하려 기도하고 금식했다. 또,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라는 권고와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내 축복사의 축복문도 살펴보았다.

어느 날, 병원까지 대중 교통으로 출근하던 길에 우연히 스테이크 축복사님과 마주쳤다. 우리는 같은 정류장에서 내렸고, 신기하게도 같은 방향으로 걷기 시작했다. 그분은 내가 교회 회원인 것을 알아보았다.

함께 걷는 동안 그분은 나의 인생 계획에 대해 물으셨다. 나는 내가 의사이고 일과 선교 사업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해야 할지 고민 중이라고 말씀드렸다. 축복사님은 단호한 목소리로 선교 사업을 나감으로써 주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하면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도 덧붙이셨다. 그분의 대답이 마치 주님으로부터 온 것처럼 느껴졌다.

순간 떠오르는 성구가 있었다. “오직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제3니파이 13:33)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셨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래서 망설임을 접고, 수련의 과정을 미룬 뒤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기로 결심했다. 동료들은 2년

동안 떠나 있으면 내가 의술을 잊어버릴 거라고 생각했다. 놀림을 받기도 했지만, 내 결심은 확고했다.

“의사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뒤로 한 채, 나는 콩고 민주 공화국 킨샤사 선교부에서 2년 동안 봉사했다.

5년이 지난 후, 나는 봉사한 결과로 주어진 중요한 축복들을 헤아려 보았다. 무엇보다도, 나는 내 아내를 만났다. 아내는 충실한 교회 회원이며 나의 가장 큰 기쁨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두 아이를 얻었다. 우리 가족은 영원히 인봉되었다. 성전에서 우리는 돌아가신 조상들을 위한 대리 의식들을 행하고 있다. 나는 우리 가족이 자립할 수 있는 안정된 직장이 있다. 이것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 일부일 뿐이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시며,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면 결국 그분의 모든 약속을 실현해 주신다는 것을 안다. ■

무칸딜라 대니 칼랄라, 라이베리아



**모**두들 나에게 선교 사업을 나가라고 설득했지만 의사로서의 창창한 미래를 미루는 것은 힘든 일이었다.



## 구주를 알게 되었기에

**고**등학교 1학년 때 나는 신약전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겠다는 결심을 한 적이 있다. 그래서 방과 후와 주말에 우리 집 2층에 올라가서 구주께서 하신 말씀과 그분이 행하신 기적과 그분의 삶에 대해 읽었다.

아직 어렸기에 성경의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었지만, 어쨌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이 땅에 보내지셨다는 것을 배웠다. 또, 나와 같이 평범하고 약한 사람들과 함께 걷고, 이야기하고, 축복하셨음을 알게 되었다.

간혹 복잡한 바울의 서신들과 요한이 쓴 계시록을 읽으며 혼란스러울 때도 있었지만, 언제나 그들의 가르침이 참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경전을 읽으면 학교에서 힘든 하루를 보낼 때 위로를 받고,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인도를 받게 되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

몇 년 후, 선교 사업을 준비하던 중에 문득 나는 내가 왜 봉사하고자 하는지 의문이 일었다. 내 간증이나 나 자신과 관련해서도 그다지 특별한 무언가가 없는 것 같았다. 선교 사업을 준비하는 것이 나에게 열심히 복음을 가르쳐 준 부모님과 지도자들에 대한 책임감 때문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하는 봉사 따위는 주님께 그다지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몰몬경을 읽던 중에 나는 아빈아다이의 말씀을 보고서 감명을 받았다.

“그가 끌려 가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임을 당하시리니, ……”

이같이 하여 하나님은 사망의 줄을 끊으시고, 사망을 이기고 승리를 얻으사, ……”

그러므로 이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가 그의 세대를 선포하겠느냐?” (모사이야서 15:7~8, 10; 강조체 추가)

그 마지막 구절을 읽고 또 읽으면서, 여기에 이런 구절이 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신약전서를 읽었기에, 나는 구주의 삶과 그분과 함께 걸었던 세대의 삶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구주의 시대 사람들은 현대로 와서 사람들에게 그분의 사랑과 속죄, 그분의 교회에 대해

가르쳐 줄 수가 없다. 그렇다면, 내가 구주에 대한 나의 간증을 나누지 않는 것을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단 말인가?

주님은 내가 받은 복음의 좋은 소식을 나누기를 원하셨다. 나는 복음이 참되다는 것을 알았고, 아울러 경전을 읽으면서 배운 진리를 나누고 싶었다.

이 일이 있은 후, 나는 곧 선교 사업을 떠났다. 이제 나는 봉사에 대한 나의 열망이 어린 시절에 경전을 읽으며 구주에 대해 배운 것에서 비롯되었음을 깨닫는다. ■

브라이언 녹스, 미국 애리조나

**선**교 사업을 준비하던 중에 문득 나는 내가 왜 봉사하고자 하는지 의문이 일었다.





**니**에베스는 회복된 복음을  
기꺼이 받아들였지만,  
우리가 침례를 권유하자 망설이는  
빛을 보였다.

## 장로님의 발이 고마워요

**내** 발은 이렇다 할 특징이 없었기에,  
볼리비아에서 갓 개종한  
니에베스가 내 발을 두고 고맙다는 말을  
했을 때 나는 이해가 안 되었다.

“저는 장로님의 발이 정말 고마워요.”  
그녀는 침례를 받은 후 몇 주 동안 그  
말을 계속했다.

니에베스는 회복된 복음을 기꺼이  
받아들였지만, 침례를 받으라는 권유에는  
망설이는 빛을 보였다.

그녀는 고통스러운 피부 상태로  
고생하고 있음을 털어놓았다. 피부에  
찬 물이 닿으면 천 개의 바늘이 모공을  
찌르는 것 같은 고통을 느꼈던 것이다.  
그런 상태였으므로 채소를 씻는다거나  
손으로 빨래를 하는 등의 평범한 일도 할  
수가 없었다.

우리는 침례탕 물을 데울 수 있다고  
설명하며 따뜻한 물에서 침례 받게 될  
거라고 확신시켰다. 표정이 밝아진 그녀는  
성탄절에 침례를 받기로 했다. 동반자와  
내가 그녀의 피부 상태를 설명하자, 지부  
회장님은 오후에 있을 침례식에 맞춰  
침례탕에 따뜻한 물을 채워 두겠다고

말씀하셨다.

하지만 침례식을 위해 예배당에  
도착했을 때, 침례탕은 차디찬 물로 가득  
차 있었다. 당황한 지부 회장님은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이라며, 물을  
준비하려면 침례식이 상당히 늦어질  
거라고 말씀하셨다.

동반자와 나는 니에베스가 그날  
침례를 받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주님의 뜻도 우리와 같다고  
믿었다. 우리는 빈 방을 찾아 들어가  
니에베스가 침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실 것을 주님께 간구했다.

기도 후, 우리는 위안을 느꼈고,  
침례식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침례에 앞서 말씀한 분들의 가르침은  
훌륭했지만, “이제 벨슨 장로가 니에베스  
자매님에게 침례를 주겠습니다.”라는  
말이 들리자 나는 갑자기 긴장이 되었다.

나는 불안한 마음을 감추려 애쓰며  
조심스럽게 차디찬 물속으로 들어갔다.  
니에베스는 내 손을 잡고 물을 향해 발을  
내디뎠다. 나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마음을 단단히 먹었지만, 니에베스는

비명을 지르지도, 몸을 움찔거리지도  
않았다. 그녀는 차분하게 계단을  
내려와서 나를 올려다보며 웃음을  
지었다.

침례 기도 후에 그녀는 찬 물속에  
몸을 뉘었다. 다시 일으켜 세울 때,  
그녀는 환한 웃음을 지으며 물에서  
나왔다. 내 마음은 감사함으로 가득  
찼다. 나에게 그녀의 침례는 기적이었다.

마지막으로 니에베스를 만났을 때,  
그녀의 말을 들으면서 내 발에 대해  
그녀가 왜 그렇게 말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었다. 그녀는 “나는 장로님의 발이 정말  
고마워요. 우리 집까지 걸어와서 나에게  
진리를 전해 주었잖아요.”라고 말했다.

나는 이사야의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니에베스와 그녀의 단순한 신앙과 감사를  
생각한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사야  
52:7; 또한 모사야서 12:21 참조). ■

니콜라스 벨슨, 미국 텍사스

## 충실함의 발자취

**얼**마 전부터 나는 성전이 비치는 잔잔한 물과 분수대, 아무도 밟지 않은 흰 눈이 덮인 도보를 담은 솔트레이크시티 템플스퀘어의 사진을 찍고 싶었다. 발자국이 없는 깨끗한 눈을 찍으려면 저녁에 눈보라가 몰아친 다음 날에 아침 일찍 템플스퀘어에 도착해야 했다.

밤새 눈이 오겠다는 예보가 있었던 어느 저녁, 나는 갈 채비를 했다. 템플스퀘어의 정원 관리인들이 보도 제설 작업을 새벽 5시부터 하기에, 자명종을 새벽 3시에 맞추고 장비를 준비했다.

다음 날 아침, 차를 몰고 눈 덮인 길을 지나 4시 15분에 템플스퀘어에 도착했을 때, 눈은 그때까지도 멈추지 않고 있었다. 나는 사진 찍기 좋은 장소 가까이 주차를 하려고 주변을 돌기 시작했다.

첫 바퀴를 도는데, 솔트레이크 성전 입구로 이어지는, 발자국이 전혀 없는 눈 쌓인 보도가 보였다! 완벽한 사진이 나오겠다 싶었다. 신이 나서 다시 차를 몰아 구획을 돌며 주차할 곳을 찾았다.

성전 북쪽 길을 따라 동쪽으로 향했고, 웬지 그 보도와 가까운 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주차할 만한 곳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다 지나쳐 버렸고, 결국 다시 성전 입구에 다다랐다.

나는 빨간 신호에 차를 멈추고서 막 쌓인, 자연 그대로인 눈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왼편에 있는 컨퍼런스 센터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안식일 복장을 단단히 갖춰 입고 고개를 숙인 채 눈을 맞으며 성전을 향해

걸어오시는 할머니 한 분이 보였다.

‘아, 안 되는데. 내 사진은 어떡하지!’

그 할머니가 내 앞을 지나 길을 건너시는 동안, 나는 고개를 돌려 곧 망가질 눈 덮인 보도를 바라보았다. 벌써 또 한 명의 자매님이 보도를 지나 성전 입구로 들어가고 계셨다. 잠시 후에는 처음에 본 그 할머니도 보도 위를 걸어가셨다. 나는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신발에도 발목에도 눈이 묻어 있었지만, 할머니는 앞서 지나간 자매님의 발자국을 따라 디디며 천천히, 그러나 확신에 찬 발걸음으로 보도를 지나고 대문을 지나

성전 입구로 들어가셨다.

눈 앞에 펼쳐진 광경에 대해 생각하다 차 안의 시계를 보니, 4시 20분이었다. 따뜻한 차 안에 앉아, 새로 쌓인 눈 위에 찍힌 발자국을 보고 있으니, 맡은 임무를 수행하려고 길을 나선 두 자매님들의 충실함에 마음이 겸허해졌다.

나는 그 구획을 다시 돌아서 차를 세우고, 카메라를 집어 들고, 눈발 위에 남겨진 그 발자국들을 사진으로 담았다. 원래 구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진이 나왔다. ■

랜돌프 산콜라, 미국 유타



**발**자국이 없는 새로 쌓인 눈 사진을 찍으려면 템플스퀘어에 아침 일찍 도착해야 했다.

# 안식일이 주는 축복

에멀린 알 윌슨

**애** 너벨리 하이야트가 놀이공원 회사에 인턴으로 취업한 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힘든 일이 되었다. 미국 텍사스에서 자라면서 애너벨리는 안식일에는 예배를 드리고, 휴식을 취하고, 남에게 봉사하라고 배웠다. 그러나 인턴으로 취업하여 플로리다로 이사하고 나서는 일요일에도 일을 해야 했다.

그녀는 이렇게 설명한다. “처음엔 다른 동료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제 의무를 다하기 위해 일을 하러 갔어요. 그런데 몇 주가 지나고부터는 성찬을 들지 못하고 영감 어린 말씀도 듣지 못하면서 제가 주 중에 얼마나 많은 슬픔을 느끼는지를 인식하게 되었죠. 어느 때보다 그것들이 더 필요한 때에 말이에요.”

어느 날 그녀는 기도로 도움을 간구하고 용기를 내어, 상관에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궁극적으로  
순종과 태도, 선택의  
문제이다.**

일요일에는 근무하지 않고 교회에 가고 싶은 자신의 바람을 이야기했다. 상관은 그것이 애너벨리에게 왜 그렇게 중요한 일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는 뜻을 접지 않았다. 관리자나 일정을 관리하는 상관을 만날 때마다 자신이 일요일을 쉬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 다른 날 훨씬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기적처럼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애너벨리는 이렇게 말했다. “토요일과 일요일에 쉴 수 있게 된 거예요. 고작 한 달밖에 안 된 성수기의 인턴에게는 허락되어 본 적이 없는 조건이죠. 주말에 쉴 수 있는 특권은 보통 직급이 높은 관리자들에게만 돌아가니까요.”

애너벨리는 자신이 받은 축복에 대해 이렇게 간증한다. “교회에 참석할 때 얻을 수 있는 빛이 다시 제 일상에 비치기 시작하면서 극적인 변화가 느껴졌어요. 왜 교회에 가는지, 혹은 왜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지 묻는 동료들이 있으면, 저는 그냥 함께 가 보자고 말하죠. 그렇게 해서 교회에 동료 몇 명을 데려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것을 위해 나설 만한 가치가 있음을 의심 없이 믿어요. 생활에 영을 동반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려면



안식일을 준수해야 하죠.”

많은 청년 독신들처럼, 애너벨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는 결의를 굽히지 않았고 그 결과로 축복을 받았다. 안식일에 일을, 또는 주 중에 할 만한 활동을 하라는 압력에 맞서는 것이 어렵겠지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일은 궁극적으로 순종과 태도, 그리고 선택의 문제이다. 엄청난 축복들이 뒤따를 것이다. 다음에 소개할 세 명의 청년 독신들은 주님께서 그분의 날을 거룩하게 지키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간증을 나눌 것이다.

### 주님께서 방편을 마련해 주셨다

집에서 멀리 떨어진 대학에 입학하면서, 독일의 카트린 술츠는 예상치 못하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는 결의를 시험받게 되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부모님은 저희 남매들에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일이 중요하다고 가르치셨어요. 저희 남매들에게 그 말은 곧 일요일에는 일을 하지 않고, 물건을 사거나 운동 경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했죠. 제 기억에, 예외가 있었던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다니는 대학에서는 주말

내내, 그러니까 토요일과 일요일에 걸쳐 열리는 세미나에 참석해야만 했어요. 힘든 고민에 빠졌죠. 세미나에 참여하지 않으면 졸업을 할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상황을 잘 살펴보았는데, 이 문제는 도저히 저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순종하는 동시에 학업을 마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시기를 주님께 간청했죠.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나자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세미나 날짜가 임박하자 긴장이 되었지만, 주님께서 방법을 마련해 주실 거라는 확신을 버리지 않았죠. 그리고 어느 날, 세미나 일정을 붙여 놓은 게시판 앞에 서 있었는데 거의 모든 세미나는 일정이 주말로 잡혀 있는데, 딱 한 세미나가 일요일을 포함하지 않은 3일 일정으로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도록 도와주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세미나가 일요일이 아닌 날에 잡힌 건 전무후무한 일이죠. 그런데 제가 세미나를 꼭 들어야 하는 그 해에는 주님께서 예외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제가 주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방편을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 일요일 예배를 준비하며

유타에 사는 캐서린 월킨슨은 토요일 밤 늦게까지 자주 깨어 있었다. 그녀는 어느 주말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했다. “친구와 나가서 저녁을 먹고, 영화를 보고, 새벽이 될 때까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결국 새벽 두 시경에야 잠자리에 들었죠.

일요일 아침이 왔고, 7시 30분에 울리는 자명종을 어둠 속에서 더듬어서 껐어요. 졸음이 쏟아지는 와중에도 교회는 8시 30분에 시작하니까 하면서 자명종을 다시 8시로 맞췄죠. 그리고 일어났을 때는 제시간에 가기 위해 엄청나게 서둘러야 했어요. 2분 동안 샤워를 하고 아침은 건너뛰고, 다급하게 교회로 달려갔어요.

교회 모임이 너무나 길게 느껴졌어요. 모임 동안 졸음을 참기 힘들었죠. 시계를 보며 집에 가서 낮잠을 잘 시간만 기다렸어요. 주일학교가 시작되고서야 비로소 아침에 서둘러 나오느라 경전도 교재도 가지고 오지 않은 것을 깨달았죠.”

결국 캐서린은 안식일을 즐기고



### 안식일에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일요일은 속도를 줄이고, 멈추고, 기억하는 날입니다. 교회 모임에 참석하고, 우리의 축복과 장점과 부족한 면에 대해 생각하고, 용서를 구하며, 성찬을 취하고, 우리를 대신해 구주께서 겪으신 고통에 대해 깊이 생각합니다. 그분을 예배하는 데 방해가 되는 그 어떤 것들로도 주의를 잃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 안식일에 하는 활동은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영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안식일에 하는 일들 중에서 구주를 기억하고 안식일에 그분처럼 성역을 베푸는 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자신의 행동을 재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오늘 시간을 내어, 여러분의 생활에서 안식일을 정말로 신성하고 거룩한 날로 만들기 위해 해야 할 일들을 신중하게 계획하십시오. 그 다음 그 계획을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래리 엠 김슨, 본부 청년 회장단 제2보좌, “나는 항상 그분을 기억합니다”, 리아호나, 2014년 1월호, 56쪽.



거룩하게 보낼 수 있도록 변화하기로 결심했다. “제가 안식일을 어떻게 보냈는지를 생각해 보았어요. 일단, 너무 늦게 일어났고, 준비가 덜 된 상태로 교회로 달려갔고, 모임을 하는 세 시간을 (좋지 않은 태도로) 견디고, 잠을 더 자려고 집으로 돌아왔죠. 그런 식으로 일요일을 보낸 게 처음도 아니었어요. 안식일 예배의 온전한 축복, 특히 성찬과 그에 따르는 축복을 저 자신이 포기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육체적으로 모임에 참석하는 것 이상의 일이죠.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그곳에 있어야 한다는 걸 뜻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스펜서 더블유 김볼(1895~1985) 회장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안식일에는 건설적인 생각과 행동을 해야 하며,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단지 빈둥거리는 것은 안식일을 어기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준수하고자 한다면, 무릎 꿇고 기도하고 공과를 준비하며, 복음을 공부하고 명상하며, 아픈 사람과 괴로운 사람을 방문하며, 낮잠을 자고, 건전한 자료를 읽고, 그날 참석해야 할 모든 모임에 참석하는 것입니다.’(*The Miracle of Forgiveness* [1969], 96-97) 변화를 시도하고 이 성스러운 날을 영예롭게 하려 노력하기 시작하면서 제 삶에 더 큰 축복들이 뒤따랐습니다.” ■  
글쓴이는 미국 유타에 산다.

## 안식일을 훌륭히 지키려면?

- 주님을 경배하고, 성약을 새롭게 하고, 자신과 소속 와드 혹은 지부의 사람들을 강화하기 위해 교회에 참석합니다.
- “그리스도의 말씀을 흡족히 취[함으로써]”(니파이후서 31:20) 경전 공부를 우선순위에 둡니다.
- 자신의 부름을 위해 일합니다. “그저” 보조 반주자라 하더라도, 여러분은 연습할 수 있습니다.
- 가정 복음 또는 가정 방문 교육을 통해 개개인을 돌봅니다. 혹 아직 많은 임무가 없더라도 여러분이 지닌 영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찾아서 다가갑니다.
- 가족과 대화하는 시간을 보내고, 경건하고 건전한 활동을 함께 합니다.
- 자신이 하고 있는 활동을 왜 하는지 생각해 봅니다. 그 활동은 주님을 섬기고 그분의 일을 하는 데 도움이 됩니까? 여러분의 가족이나 와드를 단합하게 합니까?
- 주님의 날에 어떻게 그분을 공경할 수 있을지 기도로 인도를 구합니다.

# 프랑스령 폴리네시아의

## 튼튼한 노와 강한 간증

민디 앙 리아비트  
교회 잡지

**태** 평양 한가운데에는 해저 화산과 산호 환초 때문에 생겨난 118개의 섬이 있다. 야자수와 흑진주, 티아레 꽃으로 가득한 이 섬들에는 약 27만 5천 명의 타히티인이 살고 있다. (프랑스령 폴리네시아의 주민들은 일반적으로 타히티인으로 불린다.)

스물아홉 살인 개종자 게리 후우티도 그중 한 명이다. 게리는 국기인 바(vaï)를 좋아하는데, 아우트리기 카누라 불리기도 하는 이 스포츠는 그가 열여섯 살일 때부터 삶의 중요한 일부였다. 경기를 뛰기 시작한 지 5년째 되었을 무렵, 그는 카누 챔피언이자 교회 회원인 레이드리안을 만났다. 그녀의 모범 덕분에 게리는 침례를 받았고, 레이드리안이 타히티에서 선교 사업을 하는 동안, 그는 뉴칼레도니아에서 선교 사업을 했다. 그들은 게리가 귀환하고 6주 후에 결혼했다.

그로부터 몇 년이 흐른 지금, 그들에게는 아들도 하나 생겼고, 게리는 여전히 바 경기에 참가하고 있으며, 아울러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바 경이용 카누에 쓰이는 노를 제작하는 일을 하고 있다. 게리는 이렇게 말한다. “저는 제 집

바로 옆에서 일을 하죠. 나가서 나무를 찾아 자르고 그걸 붙여서 노를 만드는 겁니다.” 단순하게 들리지만 아름다운 나무 노 하나를 만들려면, 꼬박 5일의 시간을 쏟아야 한다. 후우티 부부가 사는 섬에서 카누 이용 인구는 약 2만 명에 달하기에, 수요가 꽤 많은 편이다.

게리와 레이드리안 모두 교회 부름으로 바쁘지만 이들은 시간을 내어 성전에 간다. 게리는 “성전에 가기 때문에 저희가 더 잘 지낼 수 있는 거죠.” 하고 말한다. “일과 관련해서도 축복을 받았어요. 노를 파는 일을 혼자서도 할 수 있겠지만, 그 일을 주님과 함께 하면 더 잘 되지요.” 그러한 하늘의 도움은 후우티 부부에게 지극히 중요하다. 또한 게리와 그의 아내는 십일조에 대한 강한 간증이 있다. 게리는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길 여부를 걱정하지 않아요. 십일조를 내는 사람은 십일조를 내기 전보다 더 많이 소유하게 될 겁니다.”

후우티 부부에게 바 경기는 운동 이상의 것이다. 훌륭한 카누 선수가 되는 데 필요한 헌신과 결의의 원리는 게리와 레이드리안이 복음에 더 헌신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게리는 이렇게

**프랑스령 폴리네시아의 한 젊은 부부는 그들이 좋아하는 운동과 복음 사이에 몇 가지 공통점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말한다. “바 경기는 체력이 아주 중요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정신력입니다. 경기를 끝내겠다는 결의가 있어야 하죠. 네 시간 반 동안 노를 젓고 나면, 우리의 몸이 이 경주를 끝내지 못하겠다고 말을 하지요. 하지만 우리의 정신은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복음에서도 결의는 매우 중요합니다. 때로 용기가 꺾일 때도 있지만, 신앙으로 우리 인생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따름으로써 우리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바 경기를 통해 항상 복음에 적용되는 무언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





## 게리에 대하여

### 좋아하는 타히티 전통 요리는 무엇인가요?

카쿠[Kaku]를 제일 좋아하죠. 카쿠는 빵나무 열매를 으갠 반죽으로 만들어, 그것을 코코넛 과즙과 프와송 크루[poisson cru](타히티 고유의 날생선 요리)와 함께 먹는 음식이죠.

### 취미는 무엇인가요?

저희 가족은 바다에 가고 나뭇잎을 모으며 함께 노는 것을 좋아해요.

### 프랑스령 폴리네시아의 독특한 전통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타히티 춤은 폴리네시아 문화의 한 부분입니다. 1881년에 시작한 헤이바 춤 축제가 매년 열리고 있지요.

## 프랑스령 폴리네시아의 교회

후기 성도 회원 수: 22,659명

스테이크: 8개

와드 및 지부: 83개

가족 역사 센터: 16개

선교부: 1개

성전: 1곳 (파페이테)

## 숫자

매년 1억 달러 상당의 흑진주 수출

프랑스령 폴리네시아의 해양 면적은 3,106,839제곱킬로미터인 반면, 국토 면적은 2,485제곱킬로미터에 불과함

평균 기온은 섭씨 26도, 평균 수온은 섭씨 27도

13개 글자로 이루어진 타히티 문자

## 타히티에 관한 사항

수도: 파페이테, 타히티 섬에 있음

언어: 프랑스어, 타히티어

# 날마다 하나님께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서는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신앙을 가르치려고 애쓰십니다.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주** 기도문에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마태복음 6:11) 또는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누가복음 11:3)라는 간청이 나옵니다. 우리에게는 매일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미 모두 인식하고 계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그러한 도움이 문자 그대로 일용할 양식, 즉 하루를 사는 데 필요한 음식일 것입니다. 또는 만성질환이나 더디고 고통스러운 재활 과정을 견딜 영적인 힘과 체력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예컨대 공과를 가르치거나 시험을 보는 것과 같은 그날의 책임이나 할 일에 관한, 신체와는 거의 무관한 필요 사항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분의 제자인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즉 그날 필요한 도움과 생필품을 하나님께 구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라는 주님의 권유는 하나님이 사랑으로 충만하신 분이며, 그분의 자녀에게 날마다 필요한 작은 것까지도 아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기꺼이

도와주시려 하는 분임을 보여 줍니다. 그분은 우리가 신앙으로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야고보서 1:5)고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위안을 주는 말씀이지만, 여기에는 단지 하루하루 도움을 얻는 것보다 더욱 중요한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받으면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에 대한 우리의 신앙과 신뢰가 자랍니다.

## 필요한 것들을 매일 하나님께 의지하여 신앙에 자양분을 공급하십시오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한 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보낸 사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백만 명이 죽어 넘는 이 사람들에게는 양식이 필요했습니다. 그 많은 사람이 한 지역에서 사냥으로 오랫동안 양식을 마련하기란 틀림없이 불가능했으며, 그 당시 유목민의 생활방식으로는 작물을 재배하거나 가축을 키워 충분한 식량을 얻기도 쉽지 않았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일용할 양식, 곧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 주시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백성들에게 매일 그날 필요한 만나를 거두되 다만 안식일 전날에는 이를 치 분량을 거두라고 명하셨습니다.(출애굽기 16:19~29 참조)

여호와께서는 400여 년에 걸쳐 조상의 신앙을 거의 잃어버린 백성에게 일용할 양식을 하루하루 주시는 것으로 신앙을 가르치려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무슨 생각을 하든지 나를 바라보라. 의심하지 말며, 무서워 말라.”(교리와 성약 6:36)라고 하시며 당신을 신뢰하라고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한번에 하루치만 주셨기에 그들은 여섯째 날을 제외하고는 다음 날이나 그 후에 먹을 만나를 비축할 수 없었습니다. 요컨대 이스라엘 백성은 매일 주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그분이 그 다음 날, 이어서 그 다음 날에도 계속 필요한 양식을 충분히 주시리라는 것을 신뢰해야 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그들은 마음과 생각이 주님에게서 멀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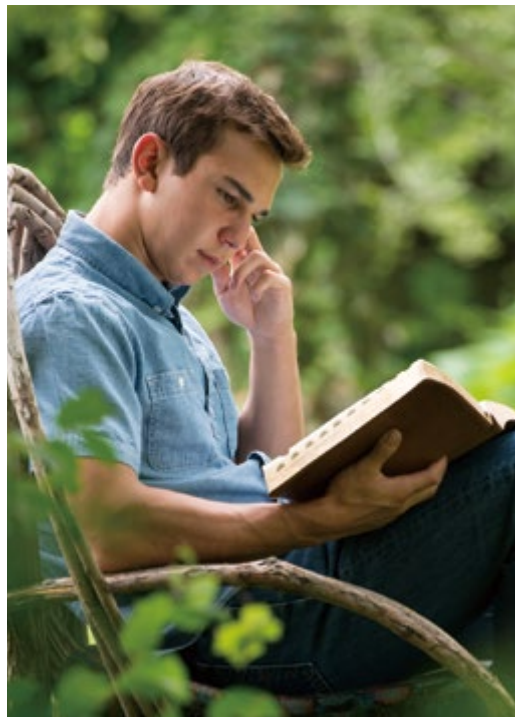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시간이 흐르면 해결책이 마련될 것입니다**

총관리 역원으로 부름받기 얼마 전, 저는 수년 동안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저와 가족의 안위가 위협을 받을 때면 재정 파탄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기적적인 도움으로 우리를 구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진지하고도 간절하게 여러 차례 기도를 드렸음에도 마지막에 주어진 응답은 “아니다.”였습니다.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받으면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에  
대한 신앙과 신뢰가  
커집니다.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라는 주님의  
권유는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하신 분이  
그분의 자녀에게  
날마다 필요한  
작은 것까지도  
알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기꺼이  
도와주시려는  
분임을 보여 줍니다.



마침내 저는 구주께서 하셨던 것처럼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누가복음 22:42)라고 기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최종 해결책으로 나아가는 작은 단계마다 주님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또 제가 가진 재원이 바닥나고 기멸 곳도, 의지할 사람도 없던 때가 있어 하나님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눈물로 도움을 간구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그분께서는 도움을 주셨습니다. 모든 일이 잘 해결될 것이라는 평안함 외에는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방법이 무엇이고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몰랐지만, 하나님은 저에게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길을 열어 주실 것임을 알려 주셨습니다. 상황이 바뀌기도 하고 도움이 될 만한 새로운 생각이 떠오르기도 했으며, 어떤 예상치 못한 수입이나 다른 재원이 때마침 생기기도 했습니다. 어떻게든 해결책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괴로웠지만 지금 돌아보면 제 문제에 빠른 해법이 없었던 것에 감사합니다. 저는 참으로 여러 해 동안 거의 날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면서 기도하여 답을 얻는 법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실제로 행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저는 구주와 하나님 아버지께 어떤 면에서 어느 정도 알게 되었는데, 그 지식은 그런 경험을 통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거나 훨씬 더 시간이 걸려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일용할 양식이 소중함을 깨달았으며 오늘날 주어지는 만나가 성경 속 역사에 기록된 만나만큼 실제적일 수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신뢰하는 법과 날마다 그분과 함께 걷는 법을 배웠습니다.

### 큰 문제를 작게 나누어 날마다 조금씩 해결해 나가십시오

아울러 일주일 치나 한 달 치, 혹은 일 년 치 양식보다는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문제의 더 작은 부분, 즉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하는 방법입니다. 큰일을 해결하려면 우리는 그 문제를 작게 나누어 날마다 조금씩 해결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가 한 번에 하루(혹은 하루 중 일부만)일 때도 있습니다. 경전에는 나오지 않는 예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의학적으로 초기적인 상태라 할 수 있지만 제 어머니는 1950년대 당시 어렵고도 획기적인 방법으로 암 수술을 받으셨는데, 이후로도 고통스러운 방사선 치료를 수십 번 받아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당시에 할머니로부터 받은 가르침이 그 이후로도 계속 도움이 되었다며 그때 경험을 다음과 같이 회상하셨습니다. “나는 너무나 아팠고 몸도 약했단다. 그래서 어느 날 할머니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지. ‘아, 어머니, 앞으로 이런 치료를 열여섯 번이나 더 받아야 한다니, 더는 못 참겠어요.’ 그랬더니 할머니는 ‘오늘은 할 수 있겠니?’ 하시더군요. ‘네.’ ‘그럼, 얘야, 오늘 할 일은 그뿐이다.’ 한 번에 하루만, 한 번에 한 가지만 감당하면 된다는 그 말씀이 늘 나에게 도움이 되었단다.”

기도로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에는 여러분의 필요 사항, 즉 여러분에게 부족한 것과 여러분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을 신중히 생각하십시오. 잠자리에 들면, 그날의 성공과 실패를 돌아보고 다음 날을 더 나은 날로 만들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가는 길에 만나를 두셔서 그날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여러분이 하루를 돌아보는 가운데 어떤 일은 견디게 하고 또 어떤 점은 변화하게 해 주신 그분의 손길을 깨닫게 되면 그분에 대한 신앙이 커질 것입니다. 또 새로운 하루와 영생을 향해 한 걸음을 더 내딛게 된 것을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이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는 만나가 상징하는, 바로 생명의 떡이신 구속주가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요한복음 6:35, 47~48).

저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시며, 그분의 속죄 권능과 그 범위는 무한하다는 점을 간증드립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은 그리스도의 속죄요 은혜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분의 뜻을 행하고 예수께서 아버지와 하나이신 것처럼 그분과 하나가 되기 위해 매일 그분을 찾아야 합니다.(요한복음 17:20~23 참조) 저는 여러분이 이를 구하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

2011년 1월 9일 교회 교육 기구 노변의 모임에서 전한 말씀에서 발췌함.





조지 에프  
제블로즈 장로  
칠십인 정원회

# 좋은 친구에게서 힘을 얻으십시오

**저**는 칠레의 작은 도시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12살 때 처음으로 선교사들을 보았을 때, 저는 호기심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반 친구 하나가 자기가 가족과 함께 교회 회원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친구의 초대로, 저는 수개월 동안 모든 일요일 모임과 화요일 활동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우리 지부는 생긴 지 얼마 안 된 곳이었고, 사실상 저는 거의 지부 초창기부터 참석했기에 사람들은 모두 제가 회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6개월 후에 한 선교사에게 제가 회원이 아님을 이야기했는데, 제 생각에 그때 선교사들은 저희 가족에게만

관심을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교사들은 제 가족들과 접해 보려 했지만, 부모님과 형제자매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선교사들이 제게 침례를 권유했을 때, 12세였던 저는 부모님의 허락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18세가 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실 것 같았던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매주 일요일 아침에 제 형제자매들이 자는 동안에 일어나서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예배당으로 걸어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제 아들이 이 결정에 책임질 수 있다면, 허락하겠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마치 천국에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다음 날 침례를 받았습니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저는 교회 회원이 됨으로써 영적인

여러분이 사귀는 친구들은 여러분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여러분도 그러합니다.



축복을 받았으며, 그와 더불어 몇몇 훌륭한 친구들도 사귀었습니다. 침례를 전후로 제 또래의 청년 몇 명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는데, 우리는 아주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모든 모임과 활동에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17세가 되었을 때 저는 대학 진학으로 고향을 떠났습니다. 친구 중 세 명도 저와 같은 도시에서 대학에 다니게 되었고, 우리는 함께 살았습니다. 우리가 서로 지지하고 보호할 수 있었던 것은 큰 축복이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참석하자며 서로 격려했습니다. 넷이서 가정의 밤도 했고, 때로는 교회 회원인 다른 학생들도 초대했습니다. 대학에 다니며 보낸 그 몇 년 동안, 우리는 서로를 강화했습니다. 45년이 흐른 지금도 그 청년들은 여전히 저의 제일 친한 친구들입니다. 비록 세계의 다른 지역에 살고 있지만, 항상 연락을 주고받습니다. 우리 여섯 명은 모두 선교사로 봉사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저는 여러분도 청소년기에 교회에서 훌륭한 친구들을 사귄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신뢰하고 도우십시오. 좋은 친구는 항상 여러분을 기꺼이 도울 것이며, 여러분의 신뢰를 받을 자격이 있고, 절대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완벽한 사람을 친구로 두라는 것이 아니라 친구란 여러분의 표준과 가치를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야 함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좋은 친구가 되는 것이 즐거움만 늘 함께하는 친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친구란 친구의 복리에 진정한 관심을 두고 친구가 옳지 않은 일을 하려 할 때 용감하게 말해 주는 친구입니다.

저는 교회의 청소년 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 저의 청년 시절과 비교하면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지상에서 보내는 지금은 멋진 시간이지만, 동시에 위험하기도 합니다. 이를 잘 헤쳐 나가려면 여러분은 “쇠막대를 계속하여 굳게 잡은 채”(니파이전서 8:30) 부모님과 교회 지도자들의 권고와 충고를 따라야 합니다. 훌륭한 우정을 쌓으면, 그렇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학교나 반에서 유일한 교회 회원이기에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물로 여기시며 간절하게,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도움을 주고자 하십니다. 진실한 친구는 여러분이 그분들께 가까이 나아가도록 지지해 줄 것입니다.

경전에는 “여기에서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 것과 똑같은 사귀이 [하늘]에서도 우리 가운데 존재하리라. 다만 그 사귀이에는 …… 영원한 영광이 수반되리라”(교리와 성약 130:2)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상에서 영광에 둘러싸인 채, 친구들과 가족과 더불어 충만한 완전한 행복 속에서 재회할 순간이 어떨지 저는 그저 상상만 할 따름입니다. 참으로 놀랍고 영원히 이어질 시간일 것입니다. ■





## 착한 친구들이 실족할 때

“우리는 좋은 친구 사이였고, 항상 같은 표준을 지켰어요. 하지만  
그러다가 ……”

어디선가 많이 들어 본 말은 아닌가요? 우리는 모두 착한 친구가 옳지 않은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다른 친구들에게도 함께 하자고 권유하는 광경을 목격했거나 직접 경험해 보았다. 여러분은 이런 어려운 질문에 맞닥뜨리게 될지 모른다. “이런 행동에 대해 친구에게 말해야 할까?” “이런 행동을 계속한다면 더는 같이 어울리지 말아야 하나?”

모든 상황에 적절한 한 가지 해답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답을 찾으려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권고에 주의를 기울이는 데에는 신앙과 용기가 필요하다. “다른 사람과 친구가 되기 위해 여러분의 표준을 낮추지는 마십시오. 친구들이 그릇된 행동을 하도록 설득하려 한다면 혼자서라도 의로운 편에 서십시오. 여러분이 계명을 지키도록 지지해 줄 다른 친구를 찾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선택을 할 때에는 성신의 인도를 구하십시오.”(2011, 16~17쪽)

여기에 그릇된 길로 가자고 졸라대는 친구들을 어떻게 다뤘는지에 관한 몇 가지 본보기가 있다.





## 한때 높은 표준을 따르던 친구가 그 표준을 저버리면 어떻게 해야 할까?

### 손을 떼세요

“친구가 표준을 어기도록 부추기기 시작하자 저는 한동안 흔들렸어요. 결국 그만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한 저는 그 친구의 영향을 더는 받지 않겠다고 마음먹고 기도로 힘과 인도를 구했고, 제가 살아가야 하는 방식대로 다시 생활하려 노력하면서 필요한 인도를 받을 수 있었어요. 결국 그 친구와 어울리지 않기 시작했고, 몇 달이 지난 후에 제 간증은 훨씬 강해졌어요. 어떤 친구를 사귀느냐는 복음대로 생활해 나가는 우리의 능력에 분명한 차이를 가져옵니다.”

마가렛 테니스 케이, 17세, 미국 유타

### 희망을 버리지 마세요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저는 영적으로 아주 강한 교회 회원 한 명을 만났어요. 그 친구는 아론 신권 소유자였으며 복음대로 생활하는 훌륭한 본보기처럼 보였어요. 우리는 좋은 친구가 되었고 교회에 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죠.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 친구의 자부심과 표준을 지키는 능력이 약해지기 시작했어요. 서로 여전히 친구로 지내기는 했지만, 그 아이는 아주 좋지 못한 영향력을 미치는 다른 애들과 어울렸어요. 욕도 하고 부도덕하고 적절하지 못한 농담도 자주 했죠. ‘몰몬이즘’에 관해 무례하게 말하는 무신론자 친구들과도 어울렸죠. 나중에는 흥차에 중독되었고,

13세가 되어서는 여자친구를 사귀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어요. 걱정스러운 마음을 기분 나쁘지 않게 몇 번 말해 주었는데, 친구는 아랑곳하지 않았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제 표준을 유지하면서 모범을 보여 주려 노력했어요. 계속 친구로 지내고 싶었지만, 상황은 아주 나빠졌고, 차라리 절교하는 것이 더 낫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저는 무릎을 꿇고 그 친구의 안전을 위해 여러 차례 기도했어요.

그러던 중에 그 친구의 아버지가 다른 주에서 직장 일을 하게 되었어요. 이사할 날이 다가오자 그 친구는 자신이 한 모든 일을 돌아보더니, 제가 3년 동안 알려



### 친구의 영향력

“친구는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짓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은 친구를 닮아 그들이 가려는 곳은 어디든 함께 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생에서 우리가 따르는 길은 다음 생에서 우리가 따라가는 길로 연결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

여러분이 선택하는 친구는 여러분의 성공을 돕는 사람이거나 방해하는 사람 중 하나일 것입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안전하지 못함”, 성도의 빛, 1998년 7월호, 47쪽 ■

주려 했던 모든 것을 불현듯 이해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몇 주 동안, 할 수 있는 한 자신의 과거를 지우려고 열심히 노력했어요. 제가 말을 건네자 제가 보여 준 모범과 자기를 포기하지 않은 것에 고맙다는 말도 해 주었죠. 친구는 몇 년 만에 정말 행복해했고, 후기 성도가 되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했어요.

실족하는 친구가 있다면, 친구의 행동을 경고해 주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제 친구처럼 여러분의 친구가 들으려 하지 않더라도 포기하지는 마세요. 아마도 그때가 진짜 친구가 필요한 순간일 테니까요. 친구가 유혹하더라도 표준을 지키세요. 친구를 위해 기도하세요. 이렇게 하면 힘을 얻고, 노력을 기울이는 동안에 혼자가 아님을 알 수 있어요. 선을 옹호할 때는 약하다는 생각이 들고 위화감을 느끼기가 쉽죠.

하지만 주님께서서는 연약한 것으로 큰일을 이루실 수 있어요.”

콜린 지, 16세, 미국 와이오밍

다시 말하지만, “친구와 더는 어울리지 말아야 하나?”와 같은 질문의 답은 하나만이 아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항상 기도로 영의 인도를 구하고 기쁜 마음으로 이에 주의를 쏟는 것이다. 여러분의 기본적인 태도는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어야 한다. 여러분과 친구의 영적인 복리에 주의를 기울이며, 친구에게 모범을 보이고 친구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에 관심을 둔다. 여러분에게 미치는 친구의 영향력에도 마음을 쓰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찬 보살핌에 대한 신앙이 있을 때, 여러분이 찾는 해답을 얻게 될 것이다. ■



# 우리들 공간

## 아름다운 경치와 물몬경을 함께 나누며

**웨** 일스의 작은 도시에서 선교사로 봉사하던 시절, 동반자와 나는 그곳의 여러 언덕 가운데 한 곳으로 이어지는 거리에서 전도를 하고 있었다.

따뜻한 여름날이었다. 언덕에 올랐을 때, 아름다운 경치가 펼쳐졌다. 동반자와 나는 경치를 즐기면서 힘을 보충하기 위해 잠깐 쉬기로 했다.

가방에서 오렌지를 꺼내던 중, 언덕을 올라오는 한 중국 여성이 보였다. 나도 모르게, 그녀에게 손을 흔들었다. 그녀는 기쁘게 손을 흔들어 화답하더니 우리 옆에 와서 앉았다. 그렇게 대화를 시작했는데, 그녀는 언덕에 올라오면 하나님을, 또 그분이 자신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생각할 수 있기에 경치를 즐기려고 언덕에 올라왔다고 말했다. 또, 웨일스에서 일이 끝나면 중국으로 돌아갈 예정이라는 이야기도 했다. 그녀는

이유는 알지 못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자리를 주신 것 같다고 믿고 있었다.

그렇게 첫 만남이 있고 얼마 안 되어서 우리는 최근에 개종한 회원의 집에서 그녀를 가르치기 시작했고, 수많은 영적인 순간을 함께했다. 그중 가장 소중한 간직하고 싶은 한 순간이 있는데, 그건 바로 앞 장에 우리의 간증을 적은 중국어 물몬경을 선물했을 때, 그녀가 강한 영을 느끼고서 흐느꼈던 일이다.

얼마 되지 않아서 나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갔다. 아쉽게도 그녀의 침례식을 보러 그 지역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지만, 언덕 꼭대기에서의 그 첫 만남에 대한 추억은 언제나 나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 유력 베더, 독일



## 함께 영원히

**“하** 나님의 계획으로 가족은 영원[하다.]”(“가족은 영원해”, 찬송가, 189장)  
나는 가족이 영원히 인봉될 수 있다고 가르치는 이 초등학교 노래를 아주 좋아한다. 특히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을 때, 이 노랫말이 사실이기를 기도하기도 했었다.

최근에 나는 주님께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 어머니와 내 두 형제와 나는 아버지에게 영원히 인봉되기 위해 필리핀 마닐라 성전으로 갔다. 가족과 함께 성전에 간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으며, 어머니와 형제들의 눈에서 본 그 행복을 잊을 수가 없다. 그곳에서는 참으로 큰 기쁨을 느꼈다.

나는 성전이 주님의 집이며, 성전에서 봉사하는 분들이 성스러운 의식을 수행할 합당한 권세가 있음을 안다. 이러한 의식을 통해 가족이 아버지와 다시 함께할 수 있다는 것에 정말 감사하다. 성전에 다녀온 이후로 우리는 더 강한 가족이 되고자 힘쓰며, 영원히 함께하도록 성약을 지키려 최선을 다하고 있다. ■

크리산토 콜로마, 필리핀





일요일 공과

이번 달 주제:  
구원의 계획

# 전세의 삶에 관해

## 우리는 무엇을 아는가

지상에 오기 이전의 삶에 관한  
기본적인 진리는 우리에게 훌륭한  
통찰을 선사한다.

노먼 더블유 가드너  
세미나리 및 종교 교육원

**선** 교사로 봉사하지 않고 결혼을  
하기로 결심한 한 청년이  
먼저 축복사의 축복을 받도록  
설득되었다. “그는 축복을 받는 동안,  
자신이 전세에서 어떤 존재였는지  
어렵פות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설득하는 데 있어 자신이 얼마나  
용감하고 영향력이 있었는지를  
알았습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았는데 어떻게 선교  
사업을 나가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sup>1</sup>  
이것은 전세의 삶에 관한 지식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를  
보여 주는 한 가지 예일 뿐이다.

“몇 살입니까?”라는 질문은 대답하기  
쉽다. 생일은 우리의 신체적 나이를 말해  
주지만, 우리는 그것보다 훨씬 더 나이가  
 많다. 우리는 누구나 “신성한 품성과  
운명”을 지닌 “하늘 부모의 사랑하는  
영의 아들과 딸”<sup>2</sup>이다. 우리의 영체가

창조되기 이전에 우리는 각자 “시작도  
없으며 끝도 없는 예지”<sup>3</sup>의 상태로  
존재했다.

-----  
**우리가 하늘 부모와 더불어 영원한 존재라는  
것을 알면, 참으로 영원한  
관점에서 자기 자신과 자신의 삶을  
바라보게 되어 인생이 바뀐다.**  
-----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도와  
그분의 자녀를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 전세에서 가르침을 받음으로써  
준비되었다.(교리와 성약 138:56 참조)  
또한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할 수 있는 선택의지가 있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가운데 일부는  
그들의 “지극한 신앙과 선행”으로  
말미암아 뛰어난게 되어 지상에서 특별한  
방식으로 봉사하도록 예임되거나 임무가  
주어졌다.(앨마서 13:3) 그 당시 하나님  
아버지를 따른 이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분은 하나님의 첫 번째 영의 자녀인 예수

그리스도로, 그곳에서는 여호와로 알려진  
분이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전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 구원의  
계획을 설명하실 때 모두 함께 있었다고  
설명했다. 우리는 지상 생활의 여러  
환경에서 비롯되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구주가 필요하다는 것을 배웠다.<sup>4</sup>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주로]  
누구를 보낼꼬?”라고 물으시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아브라함서 3:27)라고  
대답하셨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태초부터 사랑하는 자요  
택한 자”(모세서 4:2)였으며, 항상  
이 역할을 수행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렇지만 루시퍼가 가로막고 나서서  
사람의 선택의지를 멸하고 루시퍼  
자신을 하나님의 보좌 위에 두게  
하려는 제안을 했다.(모세서 4:1) 이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내가 첫째를

보내리라”(아브라함서 3:27)라고 대답하셨다. 루시퍼는 모반했고, 사탄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또 영들 사이의 분열로 천국 전쟁이 일어나,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삼 분의 일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사탄을 따랐다.(교리와 성약 29:36~37 참조) 이렇게 모반한 영들은 육신을 얻지 못한 채 지상으로 내던져졌고, 하나님의 성도들에 맞서 계속 전쟁을 일으키고 있다.(교리와 성약 76:25~29 참조) 그 외의 남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상에 갈 수 있고, 또 죄와 사망을 극복하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택되었기에 기뻐서 소리쳤다.(요기 38:7 참조)

전세에서 우리는 복음 지식, 간증, 구주와 그분의 속죄에 대한 신앙을 얻었으며, 이러한 것들은 천국 전쟁에서 중요한 보호책과 힘이 되었다. 하나님을 따르는 이들은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요한계시록 12:11) 사탄과 그의 천사들을 물리쳤다. 이곳 지상에서 복음을 배우고 간증을 얻을 때, 우리는 본질적으로 언젠가 전세에서 알았고 느꼈던 것을 다시 배우는 것이다.

**지상의 모든 사람이 전세에서 구주를 따르기로 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우리가 선교 사업을 할 때 도움이 되며, 우리 삶을 변화시킨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는 이렇게 말씀했다. “이 필멸의 상태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는 구주의 계획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에게 다시 그렇게 할 기회가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sup>5</sup>

마치 우리가 지상 생활의 처음 몇 년간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처럼 전세에

관한 우리의 기억도 거두어졌다. 이는 우리가 신앙으로 걷는 법을 배우고 구주처럼 될 준비를 하는 데 필요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사랑했다는 점은 확신할 수 있다. 에즈라 태프트 벤슨(1899~1994) 회장은 “우리가 휘장을 지나 저편으로 가면 우리가 얼마나 아버지를 잘 알며, 그분의 얼굴이 얼마나 우리에게 익은 얼굴인가를 깨닫고 크게 놀라게 될 것입니다.”<sup>6</sup>라고 약속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알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더욱더 개인적이고 친밀하게 기도드리게 되며, 이로써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인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은 이렇게 가르쳤다. “전세의 교리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인생을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 …… 우리가 전세의 교리를 이해할 때 모든 것이 혼연일체가 되고 이치에 맞게 됩니다.”<sup>7</sup>

**여러분은 전세의 삶을 이해함으로써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

주

1. 랜들 엘 리드, “선택된 세대, 선택의 세대”, 리야호나, 2014년 5월호, 57쪽.
2.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리야호나, 2010년 11월호, 129쪽.
3.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 (2007), 210쪽, 또한 교리와 성약 93:29 참조.
4. 가르침: 조셉 스미스, 209쪽 참조.
5. 리차드 지 스코트, “본을 보였노라”, 리야호나, 2014년 5월호, 34쪽.
6. 에즈라 태프트 벤슨, “예수 그리스도-은사와 기대”, 성도의 빛, 1987년 12월호, 5쪽.
7. 보이드 케이 패커, “인생의 신비”, 성도의 빛, 1984년 1월호, 25쪽.

## 우리의 전세

**여** 기 전세에 관한 다른 면을 보여 주는 관련 성구들이 있다.

### 영의 자녀

로마서 8:16~17  
교리와 성약 93:23, 29, 33~34  
아브라함서 3:22~23

### 예임

예레미야 1:5  
엘마서 13:3  
교리와 성약 138:55~56

### 예수 그리스도—장자

요한복음 1:1~2; 8:56~58; 17:5  
베드로전서 1:19~20  
교리와 성약 93:7, 21

### 천국 회의

교리와 성약 121:32  
모세서 4:1~4  
아브라함서 3:24~28

### 천국 전쟁

요한계시록 12:4, 7~11  
교리와 성약 29:36~37  
교리와 성약 76:25~29

# “최근에 친한 친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슬픔을 어떻게 견뎌야 할까요?”

**친** 구의 죽음은 여러분이 직면할 수 있는 가장 힘든 시련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 죽음에 비통해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여러분이 슬픔을 느끼는 것은 그 친구를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너는 사랑 안에서 함께 생활하고, 그리하여 너는 죽는 자들을 잃음을 슬퍼할지니”(교리약 42:45).

애도 과정에 따르는 힘겨운 감정에는 슬픔, 분노, 절망감, 피로, 활동에 대한 흥미 상실, 걱정애 휩싸이는 것 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와 동시에 슬픔에 빠진 사람들은 주님을 찾고 그분께 가까이 나아감으로써 종종 평안을 느낍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은 주님의 약속을 얻습니다. “또 애통하는 자들은 다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제3니파이 12:4). 슬픔은 고통스럽지만 또한 치유가 되기도 합니다.

감정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는 긍정적인 면에 집중하도록 애쓰십시오. 친구와 함께했던 좋은 기억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구주의 평안과 위안을 느끼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선하심, 그리고 구원의 계획에서 희망을 찾으십시오.

슬픔을 느낀다고 해서 신앙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은 연차 대회에서 아내를 잃은 것과 관련하여 “단지 그림다는 말로는 이 통렬한 마음을 표현하지 못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후에 시련에 관해 말씀하며 다음과 같이 결론지으셨습니다. “가슴이 에이는 슬픔을 경험하거나 비탄에 젖거나 극한까지 시험받는 시기가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지만 그러한 어려움을 겪음으로써 우리는 더 나은 사람으로 변화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르치시는 방법으로 삶을 재편합니다.”(“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리아호나, 2013년 11월호, 85, 87쪽)

친구의 죽음이 어떤 면에서 여러분이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을 고취할 수 있을까요?



**슬픔과 신앙을 하나로 묶으세요**

슬픔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슬픔 때문에 계속 우울하다면

나빠질 수 있습니다.) 슬픔을 신앙에 묶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고난에 적응하는 최선책입니다. 지금 영의 세계에 있는 그 친구를 떠올려 보고 그 친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그 친구는 여러분을 사랑하며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영의 세계에 관해 배움으로써 구원의 계획에 대한 이해력을 키우고, 평안, 소망, 신앙을 증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으로써 도움을 구해야 함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의 감정을 정확히 알고 계시며, 진심으로 구하면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메리 지, 14세, 미국 버지니아



**하나님께서 그 친구를 사랑하십니다**

슬픔을 이겨 내기란 힘들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계획에

따라 언젠가는 그 친구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위안을 성신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받고 시련을 겪는 지상에서의 삶이 아주 짧은 순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친구가 있을 곳을 마련해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를 사랑하십니다.

마빈 에스, 16세, 필리핀 메트로 마닐라

**친구를 떠올리며 행복하게 지내세요**

저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는 그들을 위한 계획이 있으며, 그리고 그들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려 애썼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이 필멸의 삶에서 더는 어려움을 겪지 않아도 되기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더는 곁에 없다는 것이 고통스럽지만, 우리는 그들과 다시 함께할 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아리아드나 티, 19세, 멕시코 멕시코시티



**경전에서 도움을 구하십시오**

저는 최근에 끔찍한 교통사고로 저의 착한 친구를 잃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께 나아가 위안을 얻었습니다. 제게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각자를 사랑하신다는 간증이 절실히 필요할 때가 있었습니다. 간증을 얻기 위해 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을 이해해야 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그분의 자녀에 대해 품으신 뜻을 이해해야 했습니다. 제가 경전, 교회, 교회의 자료들을 통해 주님께 마음을 돌렸을 때, 그런 간증을 얻고 평화와 위안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도움이 된 것은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세상을 떠났을 때 나는 어떻게 위안을 찾을 수 있나?”라는 제목의 청소년 공과였습니다. 이 공과에 나오는 성구와 기사와 동영상은 모두 감명 깊었으며, 그것은 제 삶을 바꿔 놓았습니다.

마달린 앤, 18세, 미국 아이오와

**자살에 관하여**

십이사도 정원회의 엠 러셀 벨라드 장로는 이렇게 가르쳤다.

“자기 목숨을 끊는 이 단 한 가지 행동은 너무나 많은 피해자를 남기기 때문에 정말로 비극입니다. 우선 죽는 사람 자신이 피해자이며, 그 다음에는 뒤에 남은 가족과 친구 및 수십 명의 다른 사람들이 또 다른 피해자로서, 그중 일부는 여러 해 동안 깊은 고통과 혼란을 겪게 됩니다. ……

우리가 모든 자살의 주변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주님만이 그 모든 세부적인 것을 알고 계시며, 지상에서 우리가 행한 행위를 심판하실 분은 바로 그분이십니다.

주께서 실제로 우리를 심판하실 때에는 모든 것, 즉 우리의 유전적, 화학적 구성, 우리의 정신 상태, 우리의 지적 능력, 우리가 가르침 받은 것, 우리 조상의 관습, 우리의 건강, 기타 모든 것을 고려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

자살은 죄이며 매우 중대한 죄이지만 주님께서는 엄격하게 행위 그 자체만 보고 그 죄인을 심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 사람의 상황과 그런 행위를 할 때 그 사람이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얼마나 책임질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실 것입니다.”

“자살: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 성도의 벗, 1988년 3월호, 17~18쪽에서 발췌.



**죽음은 하나님 계획의 일부이다**

“우리가 지지와 위안을 얻기 위해 의지했던 이 젊은이들이 한창 젊은 나이에 우리 곁을 떠나 이 지상에서 사는 동안 볼 수 없다는 것은 저에게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일들을 감수하고 받아들이기란 힘든 일이었습니다. 저는 때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저 자신이 죽는 것이 더 받아들이기 쉬운 일이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가 잠잠해야 하고 그것이 하나님에 의한 일임을 알며 그분의 뜻을 받아들이고 만족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올바르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 (2007), 178~179쪽.

**다음 질문**

**“저의 몇몇 친구들은 교회에 가는 것을 시간 낭비로 여깁니다. 그것이 커다란 축복일 수 있다는 것을 친구들에게 알려 주기 위해 제가 어떻게 도와야 할까요?”**

여러분의 의견과 교회질 사진(원할 경우)을 2015년 3월 15일까지 [liahona.lds.org](mailto:liahona.lds.org)로 제출하거나 이메일 [liahona@ldschurch.org](mailto:liahona@ldschurch.org) 또는 우편으로 보내 주십시오. (3쪽의 주소 참조)

이메일 혹은 우편에 다음 사항과 동의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성명, (2) 생년월일, (3) 와드(또는 지부), (4) 스테이크(또는 지방부), (5) 서면 동의서, 18세 미만은 원고와 사진을 출판해도 좋다는 부모 동의서(이메일도 가능함.)

# 소피아가 그립습니다

어둠 속에서  
고통스러워하며, 나는  
누나가 무사하길 기도했다.





## 페르난도 페랄타

2012년에 세미나리와 고등학교를 마치자 내 인생에 새로운 세상이 열렸다. 그해의 시작은 훌륭했으며, 특히 스테이크 연합 청소년 대회가 그랬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축복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느꼈다.

몇 년 전에 이미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기로 결정했고, 그래서 2012년에 나는 가능한 한 모든 돈을 저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소피아 누나 덕분에 나는 누나가 일하는 회사에서 일자리를 빨리 얻을 수 있었다. 2월 22일, 누나와 나는 직장에 가려고 기차를 탔다. 아름다운 날이었다. 그런데, 목적지에 도착하자 굉 하는 소리가 나더니 모든 것이 암흑에 잠기고 말았다.

깨어났을 때, 통증과 혼란스러움이 밀려왔다. 나의 지상 여정은 끝나 버린 것인가? 나는 진심으로 선교 사업을 나가고 싶었고, 가정을 꾸리는 것과 같은 일들을 경험해 보고 싶었다.

그래서 살아서 선교사로 봉사할 기회를 주시도록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렸다.

홀어진 기차 잔해 속에 누운 채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누나는 보이지 않았다.

마침내 모두 조용히 해 달라고 부탁하는 소방관들의 소리를 들었을 때, 마음에 희망이 생겼다. 누나의 행방을 알 수 없었기에 나는 누나가 무사하길 바라며 기도했다. 기도를 하자 크나큰 평안이 찾아왔다. 나는 고통을 견디기 위해 싸우고 있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필요한 힘을 주셨다.

한 시간 후에 나는 구조되었다. 그 시간 동안 나는 주님께서 함께하심을 느꼈다. 다리를 수술하기 위해 병원에 후송되었을 때, 누나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고, 누나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싶었다. 그런데 누나 생각을 할 때마다 평안이 느껴졌다.

다음 날, 부모님은 누나가 사고로 목숨을 잃었음을 알려 주셨다. 그 소식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엄청난 고통이 몰려왔다. 하지만 그때, 나는 부모님이 성전에서 우리 가족이 영원히 함께하도록 인봉 받을 때 맺으신 성스러운 성약을 통해 위안과 감사를 느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해 준 천사 같은 친구들과 친척들을 보내시어 우리 가족을 축복해 주셨다. 우리는 항상 그것에 감사할 것이다. 신권 권능 덕분에 나는 걷는 법을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배웠다.

단 몇 달 만에 정상적으로 걸을 수 있게 되었다.

어떤 방향에서 바라보든, 복음은 모든 면에서 아름답다. 나는 성전과 성전 의식에 대해 깊이 감사한다. 나는 주님께서 누나를 위해 무언가 성스러운 것을 마련하셨다는 것을 안다. 누나가 없는 삶은 쉽지 않고, 또 앞으로도 그렇겠지만, 누나의 빈자리에서 느끼는 고통보다 더 강한 확신과 평온을 우리는 느끼고 있다. 우리는 소피아 누나가 정말 그립고 하루도 누나를 잊지 않는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님은 가족이 함께하지 않는 천국은 천국이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하늘과 땅 사이[Between Heaven and Earth] [DVD, 2005] 참조) 이 말씀은 참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결코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신다. 이사야 54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다. “나의 자비는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공홀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

글쓴이는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산다.

리아호나에 관한 의견은 이메일 [liahona@ldschurch.org](mailto:liahona@ldschurch.org)로 보내 주십시오.

# 경전을 공부할 시간이 없다며 미혹하는 사탄의 말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경전 공부에 시간을 할애하겠다고 결정하십시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흠족히 취하는 것이 잠이나 공부, 일, 텔레비전 프로그램, 비디오 게임, 소셜 미디어보다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시간을 내기 위해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십이사도 정원회 리처드 이 스코트 장로  
“신앙을 행사하는 일을 최우선에 두십시오”,  
리아호나, 2014년 11월호, 93쪽

특별한 증인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 위틀 할머니의 편지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가 어렸을 때, 부친은 교회 회원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회원이셨지만, 교회에 그리 자주 참석하는 분은 아니었습니다. 리차드는 여덟 살이 되어서도 침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때 외할머니께서 방문하셨습니다.

위틀 할머니는 아주 훌륭한 본보기가 되어 주셨습니다. 할머니는 리차드와 리차드의 형이 침례를 받고 교회에 참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얼마 안 있어서 리차드와 리차드의 형은 침례를 받았습니다.

리차드는 교회에서 말씀을 전해야 할 때마다 위틀 할머니께 전화를 드려 조언을 구했는데, 그러면 금세 할머니께서 리차드를 위해 손으로 쓰신 말씀 원고가 우편으로 배달되곤 했습니다. 리차드가 좀 더 자라자, 할머니는 리차드가 스스로 말씀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만한

아이디어를 쪽지에 적어 보내셨습니다. 리차드는 위틀 할머니가 자신과 복음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늘 알았습니다.

리차드는 대학에서 또 다른 훌륭한 본보기를 만났는데 그녀의 이름은 지닌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에 지닌은 리차드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결혼을 한다면, 충실한 귀환 선교사와 성전에서 할 거예요.” 리차드는 선교 사업을 나가는 것에 관해 기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곧이어 리차드와 지닌은 선교 사업을 떠났습니다. 리차드와 지닌은 귀환한 후에 유타 맨타이 성전에서 결혼했습니다. ■





게리 이 스티븐스  
감독  
감리 감독

#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아니었습니다. 2006년에 그녀는 다리가 부러져서 올림픽에 출전하지 못했습니다. 2010년에는 고작 0.1초 차이로 메달을 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노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랜 기간 동안 훈련을 계속했습니다. 2014년 올림픽에서 그녀의 경기는 흠잡을 곳이 없었습니다! 노엘은 은메달을 획득했습니다!

## 계속 노력하세요

크리스토퍼 포그는 네 명이 한 팀인 봅슬레이 경기에서 동메달을 획득한 팀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는 2010년 올림픽에서 끔찍한 사고를 당해 포기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엘처럼 계속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 역시 메달을 획득했습니다!

##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오스트레일리아 출신인 후기 성도 스노보드 선수 토라 브라이트는 1차 경기를 망친 미국의 스노보드 선수 켈리 클락이 긴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토라는 자신의 경기에 집중하는 대신에 켈리가 진정될 때까지 안아 주었습니다. 토라가 보인 이 단순하고 친절한 행동으로 두 소녀는 함께 시상대에 설 수 있었습니다. 토라는 은메달을, 켈리는 동메달을

**작** 3년에 전 세계의 사람들은 89개국에서 온 운동선수들이 러시아 소치에서 개최된 2014년 동계 올림픽에서 경쟁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이 선수들 중 10명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원이었습니다. 그중 3명이 메달을 획득했습니다!

## 열심히 노력하세요

여러분께 후기 성도 선수 중 한

명인 노엘 피커스 페이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의 종목은 스퀘레톤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작은 썰매를 타고 머리를 앞쪽으로 해서 얼굴이 땅에서 불과 몇 센티미터 떨어진 채로 바람 부는 얼음 트랙을 시속 145킬로미터로 달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노엘은 올림픽에서 불과 4분 정도, 즉 각각 60초 정도 되는 네 차례의 경기를 통해 메달을 획득했습니다.

노엘에게는 이번이 첫 번째 올림픽이



획득했습니다. 여러분의 도움과 격려가 필요한 친구나 가족이 있다면, 그들의 4분을 도와주세요.

###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여러분의 영생은 이 운동선수들의 경험과 아주 비슷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그분과 함께 살았으며,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이 지구에 올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의 지상 생활은 노엘에게 주어진 4분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이곳에서 하는 행동에 따라 영생이라는 상이 결정될

것입니다.

### 여러분의 점검 지점

노엘, 크리스토퍼, 토라는 올림픽 선수가 되기 위해 특정 단계들을 거쳐야 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특정한 점검 지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점에는 침례, 성신의 은사를 받는 것, 신권 성임, 성전 의식, 그리고 매주 성찬을 취하는 것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점검 지점에 도달하려면 매일 기도하고 경전을 공부하며 교회에 참석해야 합니다. 계명에 순종하고, 여러분이 맺은 성약을 지키며, 주님의 표준을 따르십시오. 회개해야 한다면,

속죄의 기적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을 홀로 버려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상 생활을 위해 준비해 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지금은 여러분의 일을 수행할 순간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

*“여러분에게 주어진 4분”, 리아호나, 2014년 5월호, 84~86쪽에서 발췌함.*

“이 생은 ……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할 시간이라”  
(앨마서 34:32)

# 우리들 이야기



“선교사가 되고 싶어요”,  
사뮤엘 큐, 8세, 브라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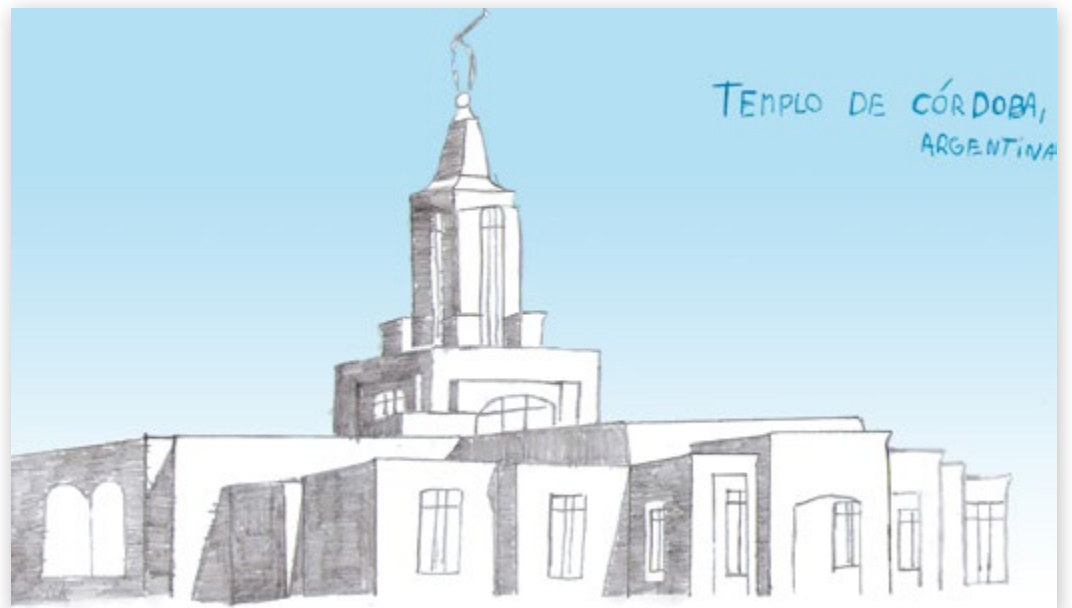


“창조, 비비안 에이, 6세, 스페인 “하나님 아버지께서 동물들을 창조해 주셔서 감사해요. 다양한 색깔을 입은 수많은 동물들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죠.”



“아르헨티나 코르도바 성전”,  
티지아노 에스, 10세,  
아르헨티나

“성전이 빨리 완공되어서 제가 12살이 될 때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으면 정말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축복을  
비처럼 끊임없이 내려  
주십니다.”

—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기쁜 마음으로 복음 생활을 합시다”,  
리아호나, 2014년 11월호, 121쪽



ILLUSTRATION BY ERIC BARCLAY

“매일 무릎 꿇고 기도하지요 하나님 아버지께 말씀드려요”(“I pray in Faith”, Children’s Songbook, 14)

“**핀**, 서둘러. 학교 갈 시간이야!” 요한이 말했습니다.

핀의 형인 요한이 현관문에서 안절부절못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요한은 학교에 지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핀은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핀은 학교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요한의 가족은 이제 막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핀은 1학년인데다

아직 학교에서 친구들을 한 명도 사귀지 못했습니다. 옛 친구들이 그리웠습니다.

“겁이 나요!” 핀이 엄마께 도움을 구하며 말했습니다. “꼭 학교에 가야만 해요?”

엄마는 핀을 꼭 안아 주셨습니다. “괜찮아질 거야. 우리 함께 기도할까?” 엄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할 시간은 언제나 있단다.”

엄마와 핀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께 핀을 도와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그런 다음 핀과 형은 학교로 갔습니다. 핀은 그날 조금 더 잘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 후로 핀은 아침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께 도움을 부탁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조금씩, 상황은 더 좋아졌습니다. 핀은 친구가 생겼고, 이제 더는 겁을 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좀 더 시간이 흐른 후부터는 학교에 다니는 것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형과 함께 학교에 가던 핀은 행복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눈부시게 빛나는 햇살이 보였습니다. 핀은 자기가 배운 재미난 것들을 모두 다 떠올려 보았습니다. 갑자기,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잇은 게 있어!” 핀이 요한에게 말했습니다. 핀은 집으로 다시 뛰어 들어갔습니다.

# 기도할 시간은 언제나 있어요

학교에 가는 게 너무 힘이 듭니다.  
상황이 더 좋아지길 할까요?





집 안으로 달려 들어오는  
핀을 엄마는 걱정스러운 눈길로  
쳐다보셨습니다.

“무슨 일이니?” 엄마께서  
물으셨습니다.

“저 기도하는 걸 깜빡했어요!”  
핀이 대답했습니다. 핀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핀은 자신을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싶었습니다.

기도를 마치자 엄마께서 핀을 안아  
주셨습니다. “기도할 시간은 언제나  
있어요!” 핀이 말했습니다.

핀은 함박웃음을 지었습니다.  
엄마께서도 흐뭇하게 웃으셨습니다.  
형을 따라잡으려고 달려가면서, 핀은  
아마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미소 짓고  
계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

글쓴이는 독일 바바리아에 산다.



# 새로운 친구를 도와주며



퀀리 더블유, 9세,  
미국 미주리

새로운 여자  
아이가 학기  
중에 우리 반에  
전학을 왔습니다.  
그 애는 다른  
학생들이랑 말하는  
것도, 모습도 조금  
달랐습니다. 그  
친구는 이사를 많이  
다녀서, 친구를  
사귀는 데 어려움을



용기를 내!

했고, 저는 정말로  
슬펐습니다. 저는 그  
친구의 새로운 주소로  
편지를 보내 달라며  
교무 직원 선생님께  
부탁했습니다. 그  
편지에 저는 그 친구가  
그리워질 것이며,  
우리는 언제까지나  
친구로 남을 것이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노는 모습을 그려  
넣었고, 그 친구가  
지닌 재능들을 다시금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라고,

겪었습니다.  
가족에게 슬픈 일이 생겨서, 여러 날을  
울면서 학교에 오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애를 돕고 싶었지만, 그 애가 다른  
애들이랑 말하는 것을 늘 좋아하는 건  
아니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기  
위해 기도를 드렸는데, 그냥 친구가 되어  
주면 된다는 성신의 속삭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친구의 숙제를 도와주었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구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특별한 재능을  
그 친구에게도 주셨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휴식 시간에 저는 그  
친구에게 저랑 다른 친구들과 함께  
기도하자고 권했습니다. 몇 달 후, 그  
친구는 제가 자기가 세상에서 처음으로  
사귀는 친구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제 친구는 다시 이사를 가야

너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새로운 친구를 사귀도록 노력해 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저는 제 친구가 새로운  
학교에서 친구를 찾게 해 달라고, 다른  
아이들이 그 애에게 친절하게 대하게 해  
달라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자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를 돕도록 우리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

# 예수님 요단강에

(쉽게 편곡한 노래)

경건하게 ♩ = 88-96

작사 및 작곡  
진 피롤러

Chords: E<sup>b</sup> Fm B<sup>b</sup>7

1. 예수님 요단강에 침례를 받으  
2. 나침례받을 때에 예수님 모범

Chords: E<sup>b</sup> C<sup>7</sup> F<sup>7</sup> B<sup>b</sup>7

실 때 신 회 의 세 분 모 두 함 께 하 셧 지  
따 라 성 신 권 권 능 으 로 물 속 에 잠 겨

Chords: E<sup>b</sup> Fm B<sup>b</sup>7

요 하 늘 에 서 아 버 지 말 씀 해 주 시  
요 난 하 늘 아 버 지 의 왕 국 백 성 이

Chords: E<sup>b</sup> C<sup>7</sup> F<sup>7</sup> B<sup>b</sup>7 E<sup>b</sup>

엇 고 성 신 비 들 기 처 럼 내 려 오 셧 지 요  
되 죠 성 령 이 항 상 나 를 인 도 해 주 지 요

© 1977, 1989, 2014 Intellectual Reserve, Inc. 판권 소유.  
이 노래는 교회나 가정에서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임시로 사용하기 위해 복사할 수 있음.  
복사할 때마다 이 문구를 표시해야 함.

# 예수님의 침례

## 에린 샌더슨 및 진 빙엄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시는 것을 보았다면 어땠을까요? 신약전서를 읽어 보면, 그 성스러운 날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시니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마태복음 3:13, 16~17)

여러분이 침례와 확인을 받는 그 특별한 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기억하고 따르겠다고 약속하고, 주님 교회의 회원이 되며, 성신의 은사를 받고, 완전히 깨끗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 때문에 아주 큰 기쁨을 느끼십니다. 침례를 받으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의 문이 열립니다. ■

글쓴이들은 미국 유타에 산다.



### 더 알아보기

요단—요단강

요한—침례 요한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물 속에 완전히 잠긴 직후에 바로 올라와 일어서시니

하나님의 성령—성신

비둘기 같이 내려—비둘기 같이 부드럽고 평화롭게 내려와

하늘로부터 소리—하나님 아버지의 음성



## 가족과 대화하기

이미 침례를 받은 가족들에게 그 특별한 날 어떤 기분을 느꼈었는지 이야기해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침례 성약을 지키려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성신이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고, 위로하며, 가르치고, 경고했는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노래:** “예수님 요단강에”(Children’s Songbook, 102)

**경전:** 마태복음 3:13, 16~17; 신약개조 제4조

**비디오:** Biblevideos.lds.org에서 “예수님의 침례”[영어]를 시청합니다.

## 경전에서 답 찾기

아래의 문장이 적힌 카드를 오려 내어 용기에 담습니다. 차례로 질문을 뽑고, 경전을 사용하여 그 질문에 대답합니다.

예수님께 침례를 준 사람은 누구인가요? (마태복음 3:13)

예수님은 왜 침례를 받고 싶어 하셨나요? (마태복음 3:15; 니파이후서 31:7, 9)

우리는 왜 침례를 받아야 하나요? (요한복음 3:5)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직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마태복음 3:16~17)

침수라는 말은 어떤 뜻인가요? (교리와 성약 76:51; 모세서 6:64~65)

우리는 어떻게 성신의 은사를 받나요? (교리와 성약 33:15)

침례를 받을 때 우리는 어떤 약속을 하나요?  
(모사이야서 18:8~13; 교리와 성약 20:37)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떤 약속을 하시나요?  
(교리와 성약 76:52~56)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살 수 있으려면, 침례를 받은 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니파이후서 31:18~20)

## 경전 공부 도움말!

아래의 간단한 3단계를 따르면 성구를 쉽게 외울 수 있습니다.

1. 성구에 나온 낱말들을 각각 다른 카드나 종이에 적습니다. 순서대로 카드를 놓고 큰 소리로 성구를 읽습니다.
2. 카드를 섞은 후 다시 순서를 맞춰 봅니다. 성구를 다시 읽습니다.
3. 카드를 하나씩 치우면서 그 성구를 다시 읽습니다. 카드 없이 전 구절을 암송할 수 있을 때까지 카드를 계속 치웁니다.

이제 성구를 외웠으니, 앞으로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은 그 성구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 줄리아나가 말씀을 해요

제인 맥브라이드 초우트  
실화에 근거함



줄리아나는 초등학교에서 말씀하는 것이 좀 겁이 났어요.  
할머니께서 줄리아나를 안아 주셨어요. 외할머니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실 거야.” 하고 속삭여 주셨어요.



차례가 되었을 때, 줄리아나는 자기를 향해 웃음 짓고 있는 친구들과 반 선생님,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보았어요. 그런 다음, 말씀을 시작했어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는 예수님에 대해 배우고, 기도하며, 가족을 도와서, 제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 드립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서도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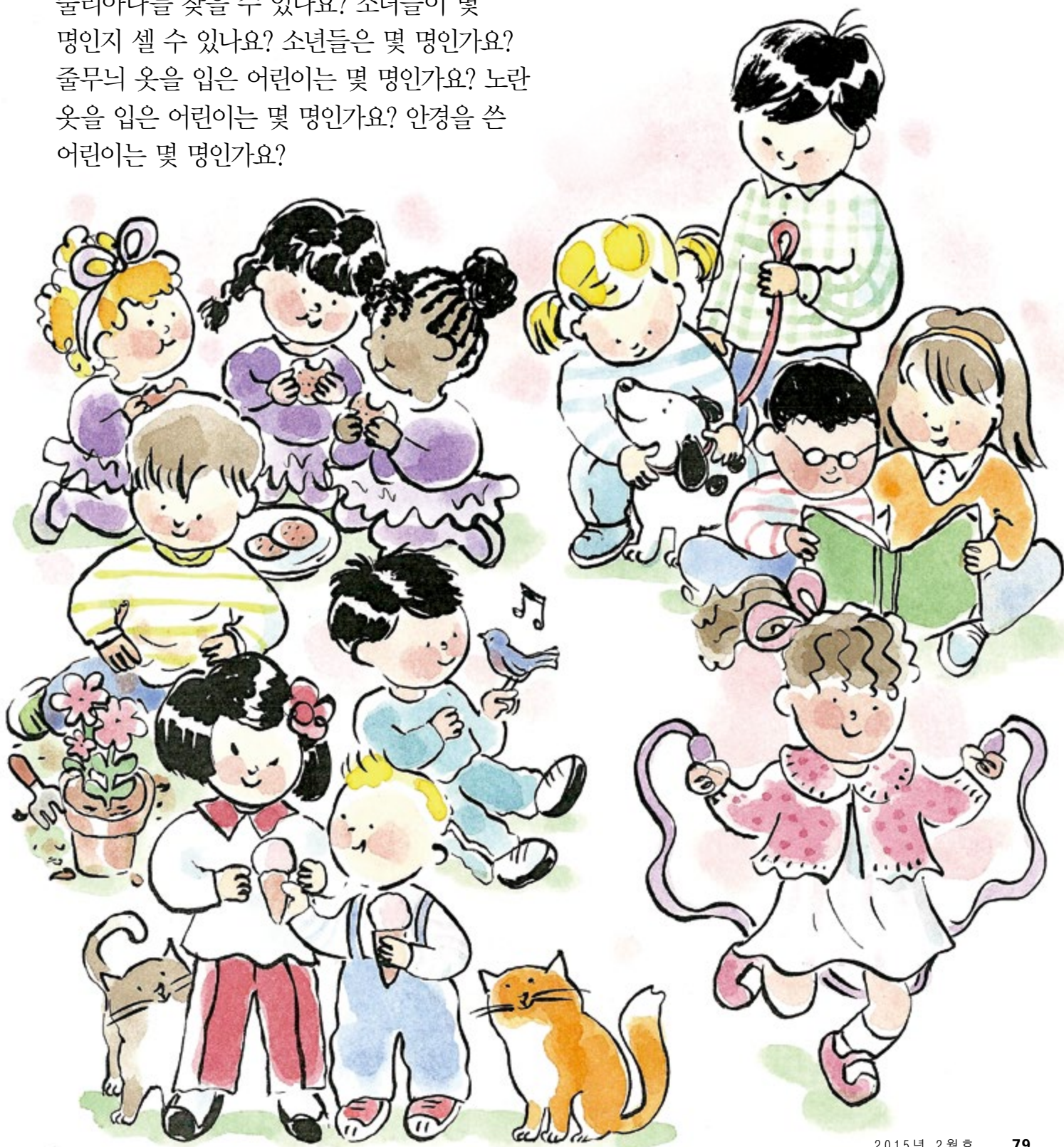


초등회가 끝난 후에 줄리아나는 할머니를 꼭 안아 드렸습니다. 줄리아나는 이렇게 말했어요. “전혀 겁이 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를 도와주고 계시다는 걸 알았거든요.” ■



# 하나님의 모든 자녀

모든 어린이는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입니다.  
 줄리아나를 찾을 수 있나요? 소녀들이 몇  
 명인지 셀 수 있나요? 소년들은 몇 명인가요?  
 줄무늬 옷을 입은 어린이는 몇 명인가요? 노란  
 옷을 입은 어린이는 몇 명인가요? 안경을 쓴  
 어린이는 몇 명인가요?





조셉 비 워스린  
(1917~2008)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 참된 사랑

사랑은 우리를 영생의 영광과 장엄함으로 인도합니다.

사랑은 제자가 걷는 길의 시작이며, 과정이며, 끝입니다. 그것은 위로하고, 권고하고, 치료하고, 격려합니다. 음침한 골짜기와 죽음의 휘장 속에서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결국, 사랑은 우리를 영생의 영광과 장엄함으로 인도합니다.

제가 보기에,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을 항상 실천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그가 그렇게 많은 추종자들을 얻고 유지하는지 물었습니다. 조셉 스미스는 “그것은 제가 사랑의 원리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sup>1</sup>

다음 이야기는 나부 근처에 살고 있던 형을 찾아 그곳으로 왔던 열네 살 소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어린 소년은 돈이나 친구도 없이 한겨울에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그 소년이 형에 대해 물었을 때, 그는 호텔처럼 보이는 큰 집으로 안내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들어오너라, 얘야, 우리가 너를 돌봐 주마.”라고 말하는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 소년은 그 제안을 받아들여, 그 집으로 들어가 먹고, 몸을 녹이고, 잠자리를 제공받았습니다.

다음 날, 혹독하게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그 소년은 13킬로미터를 걸어 형이 머물고 있는 곳으로 갈 채비를



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집 주인은 그 어린 소년에게 잠시 더 머물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곧 마차가 도착할 테니 그 마차를 타고 가라고 말했습니다.

그 소년이 자기에게는 돈이 없다고 말하며 그 제안을 거절하자, 그 사람은 돈 걱정은 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들이 계속 그를 돌봐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훗날 그 소년은 그 집 주인이 다름 아닌 몰몬 선지자 조셉 스미스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소년은 평생 동안 사랑에 찬 이 행동을 기억했습니다.<sup>2</sup>

몰몬 태버네클 합창단의 음악과 진리의 말씀이 전하는 최근 메시지에서 수십 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해 온 한 연로한 부부에 관한 이야기가 소개되었습니다. 아내는 점점 시력을 잃어 갔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껏 하던 대로 자신을 가꿀 수가 없었습니다.

부탁을 받은 것도 아닌데 남편은 아내를 위해 손톱에 매니큐어를 발라 주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손톱을 적당한 각도로 그녀의 눈 가까이에 가져가면 아내가 자기 손톱을 볼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아내가 행복해하는 것을 보는 것이 좋았기 때문에 그녀가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5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매니큐어를 발라 주었습니다.<sup>3</sup>

이것이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의 예입니다. 때때로 가장 위대한 사랑은 시인과 작가들이 만들어 내는 극적인 장면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가장 위대한 사랑은 우리가 인생 여정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보여 주는 친절하고 다정한 단순한 행위에서 드러날 때가 많습니다.

참된 사랑은 영원히 지속됩니다. 그것은 영원히 인내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밉고, 바라며, 견디어 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대해 지니신 사랑입니다. ■

“큰 계명”, 리아호나, 2007년 11월호, 28~29쪽에서 발췌함.

### 주

1. Joseph Smith, *History of the Church*, 5:498.
2. Mark L. McConkie, *Remembering Joseph: Personal Recollections of Those Who Knew the Prophet Joseph Smith* (2003), 57.
3. “Selflessness,” Sept. 23, 2007, *Music and the Spoken Word* 방송: musicandthespokenword.com/spoken-messages에서 청취 가능함.

# 통찰



## 다른 사람의 결점에 집중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한 남자가] 이웃집을 지나가는데 아름다운 잔디밭 한 가운데 엄청나게 큰 노란 민들레 한 포기가 나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 그 이웃이 왜 저걸 뽑지 않았을까? 못 본 걸까? …… 그는 이 단 한 포기의 민들레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신경이 쓰였고, 어떻게든 없애고 싶었습니다. 그냥 뽑아 버릴까? 아니면 제초제를 뿌릴까? 밤중에 몰래 와서 아무도 안 볼 때 뽑아 버릴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머릿속이 온통 이러한 생각들로 가득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여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그는 수백 포기의 노란 민들레로 뒤덮인 자기 집 앞마당에는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 우리는 타인의 문제점은 너무나도 잘 진단하고 해결책도 제시하면서, 어째서 자신의 문제점은 때로 잘 보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 이번 호에서

## 청년 성인

### 프랑스령 폴리네시아의 튼튼한 노와 강한 간증

카누는 이 청년 성인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는 가장 좋아하는 운동과 복음  
사이에서 찾은 유사점을 나눕니다.



46쪽

## 청소년



48쪽

### 날마다 하나님께 의지하십시오

매일 주님께 의지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주님을 믿는 여러분의 신앙이 나날이 발전하도록  
그분께서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알아보십시오.

## 어린이

###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올림픽 선수들처럼,  
우리는 이곳 지상에서의 시간을  
앞날을 준비하기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66쪽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교회